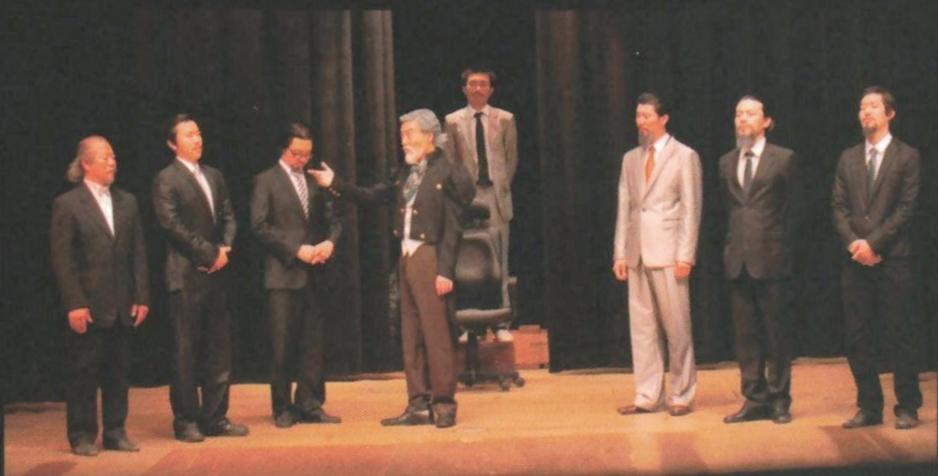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8. **10** Vol. 202

부록 부산문화회관 10월 공연캘린더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부산문화회관
개관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시립합창단
Busan City Chorus
특별기획연주회

러시아의 **구미** (혼)

마에스트로 V. 파쭌엘스키
초청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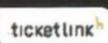
비아체슬라프 파쭌엘스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극장 합창감독

2008. 10. 9 (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균일 R석 10,000원

세미나 2008. 10. 6 14:00~16: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부산시립합창단원 및 예술단원, 세미나 신청자(전공자 우선)추후개별통보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6 www.bschorus.or.kr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곳 ———
울속도 문화회관 특별 기획 공연

Violinist
사라장 초청 연주회

Sarah Chang

Max Bruch
Violin Concerto No. 1 op. 26 외

2008. **10.15** (수) 오후 8시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울속도문화회관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인아트, 예은예술기획

회원권 /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공연문의 / 울속도 문화회관 051-220-5341 부산인아트, 예은예술기획 051-632-6904

예매처 / ticketlink 1588-4567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시립무용단 제 59회 정기공연

The 59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길들여진 토끼

...a trained rabbit

안무·구성 홍기태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무용단

협찬 THE DAILY FOCUS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2008. 11.5(수)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람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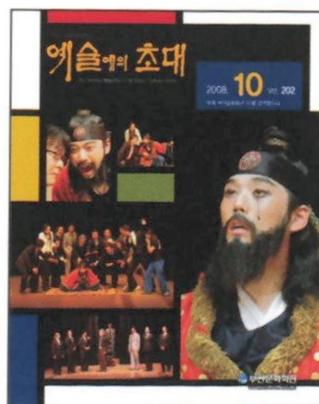
본 공연은 5세 이상의 어린이 관람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주의를 요합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ulture.busan.kr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커버스토리	08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 '불가불개(不可不可)'
반갑습니다	10	세계를 난타한 문화 CEO 송승환
프리뷰	12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16	가을 바람과 나운영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18	북경에 개관한 PACE 갤러리의 동서양 현대 미술의 '만남' 전 _ 박건해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22	우리나라 고서의 아름다운 능판화 표지 _ 채경혜
우리는 문화 가족	24	극단 아지매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25	탱고의 꽃, 반도네온 _ 황윤기
그곳에 가면	26	북구에 문을 연 대안문화공간 '自·人'
프로그램 가이드	28	
새로나온 책	42	
나의 애청음반	43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5번 라단조 작품 47 _ 이동신
부산문화회관소식	44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46	
100자 토크	4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49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 (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9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대한민국 연극제 희곡상, 서울극평가 그룹상, 동아 연극상, 백상예술 대상 등을 수상하며 연극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화제의 연극 '불가불개(不可不可)'가 부산시립극단 제 33회 정기 공연작품으로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10

October 2008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전시실

■ 제 17회 부산한국화전-대전시실
9월 29일(월)~10월 5일(일)
문의 : 부산미술협회(632-2400)

■ 신라대학교 제품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중전시실
10월 7일(화)~10월 13일(월)
문의 : 이경원(010-6866-6217)

■ 부산남구 문화예술회 작품전-대전시실
10월 9일(목)~10월 13일(월)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1~4)

■ 한국문인화대전 입상전-대·중전시실
10월 15일(수)~10월 18일(토)
문의 : 최연성(011-864-3698)

■ 동아대학교 조각과 졸업 작품전-대전시실
10월 19일(일)~10월 26일(일)
문의 : 김등용(010-8759-0890)

■ 동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작품전-중전시실
10월 22일(수)~10월 26일(일)
문의 : 노봉호(610-8532, 016-576-7276)

■ 동아대학교 미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작품전-대전시실
10월 27일(월)~11월 1일(토)
문의 : 김정임(011-488-0276)

국제회의장

■ 러시아합창의 거장
마에스트로 V. 바쥐엘스키 초청세미나
10월 6일(월) 오후 2:00
· 참석대상 : 부산·울산·경남지역 음악대학 재학생 및
합창음악에 관심있는 분
· 주제 : 러시아 합창음악의 세계
· 참가비 : 무료
·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5~6)

Sunday	Monday	Tuesday
<p>5</p> <p>대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15:00, 18:00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예술기획 자유(1599-9210)</p> <p>중 2008 대학 합창페스티벌-신라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부산통기타리스트 제 14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남상석(019-402-5880)</p>	<p>6</p> <p>대 푸르덴셜 생명 고객을 위한 가을의 음악선물 '아름다운 음악회'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크레디아(02-318-4303)</p> <p>중 향사회 정기작품 발표회-실내악의 밤 19:30 균일 5천원/백현주(010-4585-2052)</p>	<p>7</p> <p>중 향사회 정기작품 발표회-관현악의 밤 19:30 균일 5천원/백현주(010-4585-2052)</p> <p>소 배학수 클래식 기타 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박영철(011-593-3676), 배영식 · 배학수 클래식기타(205-3780)</p>
<p>12</p> <p>소 김희선 성악 클래스 연주회 17:00 무료/김희선(019-391-7556)</p>	<p>13</p> <p>대 제 9회 간염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9:00 4만원 · 3만원 · 2만원/영앤임심(주)(02-720-3933)</p> <p>중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박현정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조운선(010-7795-0035)</p>	<p>14</p> <p>중 27th 유U: 콘서트 '페르퀸트&팔러간 신부 이야기'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p> <p>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현대 작곡가의 밤 19:30 균일 1만원/조운선(010-7795-0032)</p> <p>소 2008 부산작곡가협회 제 35회 정기창작발표 19:30 초대/박원일(018-505-5689)</p>
<p>19</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008 뮤지컬 '달고나' 15:00, 19:00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중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은정(017-842-6688)</p> <p>소 오카리나 마을 부산모임 제 8회 정기연주회 14:00 무료/양인일(010-5088-0406)</p>	<p>20</p>	<p>21</p>
<p>26</p> <p>대 한울림 합창단 기획공연 '빨간 우체통 어디있어요?' 18:00 무료/김창돈(017-540-6641)</p>	<p>27</p> <p>대 2008 대학교향악축제-고신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최미정 피아노 클래스연주회 19:30 무료/최미정(017-401-8846)</p>	<p>28</p> <p>대 2008 대학교향악축제-동아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1</p> <p>중 제 26회 부산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620-7326)</p>	<p>2</p> <p>대 피터 야브론스키 피아노 독주회 20:00 7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p> <p>중 이명진 첼로 독주회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 코레아(442-1941)</p>	<p>3</p> <p>중 2008 대학합창페스티벌-인제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4</p> <p>대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 15:00, 19:00 7만7천원 · 6만6천원 · 5만5천원 · 4만4천원 예술기획 자유(1599-9210)</p> <p>중 2008 대학 합창페스티벌-동서대학교 19:30 초대/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 토요일상설무대 -일파가야금합주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8</p> <p>대 제 26회 부산무용콩쿠르 본선 10:00 KBS(620-7326)</p> <p>중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기념 '부산시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한마음 특별공연' 19:30 초대/해군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679-6061~4)</p>	<p>9</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 연주회 -러시아의 혼(魂) '마에스트로 V. 빠쥬엘스키 초청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5)</p> <p>중 제 12회 예음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정안선(016-545-2291)</p>	<p>10</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3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중 피아니스트 김정자 초청 독주회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예은예술기획 (632-6904)</p>	<p>11</p> <p>대 한·일 발레 문화교류 2008 심현숙 발레단 제 12회 정기공연 18:00 초대/심현숙(751-5080, 017-857-5080)</p> <p>중 우드윈드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8:00 균일 5천원/원준연(019-660-3919)</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p>
<p>15</p> <p>중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제 2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솔로와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조윤선(010-7795-0035)</p>	<p>16</p> <p>중 소프라노 서경숙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서경숙(624-3105, 010-2655-6105)</p>	<p>17</p> <p>중 장형준 피아노 독주회 '눈물'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 코레아(442-1941)</p>	<p>18</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008 뮤지컬 '달고나' 15:00, 19:00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중 코리아 색소폰앙상블 초청 All 연세 색소폰앙상블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이성환(011-9873-5404)</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노래로 가을을 열라'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22</p> <p>중 제 24회 하야로비현대무용단 정기공연 19:30 1만5천원 · 1만원/임연희(018-574-328)</p>	<p>23</p> <p>대 제 19회 대학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대학무용제 운영위원회(627-7992)</p> <p>중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28회 정기연주회 '한국 오페라 60년사-세계의 오페라' 19:30 균일 1만원/박찬(010-7315-7352)</p> <p>소 문금자의 정가 19:30 초대/문금재(019-559-6119)</p>	<p>24</p> <p>대 제 19회 대학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대학무용제 운영위원회(627-7992)</p> <p>중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Ladies do it!' 19:30 균일 1만원/예은예술기획(632-6904)</p>	<p>25</p> <p>대 기드온 콰이어제 12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연병희(011-876-6529)</p> <p>중 제 2회 뮤즈콰이어 정기연주회 19:00 균일 1만원/추인수(240-8127, 019-503-9693)</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국악협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29</p> <p>대 부산시 구·군 여성연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차순남(018-577-3137)</p>	<p>30</p> <p>대 레프레르 피아노 콘서트 인 부산 19:30 5만원 · 4만원 · 2만원/부산문화(633-8990)</p> <p>중 부산시립극단 제 33회 정기공연 '불가불가(不可不可)'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p> <p>소 동서씨어터 정기공연 '척하지 마세요' 20:00 1만 5천원 · 1만 2천원 동서씨어터(320-1916, 010-7736-1910)</p>	<p>31</p> <p>대 세원장학문화재단 제 5회 명인 3색 어울림 2008 세원음악회 19:00 초대/세원장학문화재단(310-5512, 018-567-2231)</p> <p>중 부산시립극단 제 33회 정기공연 '불가불가(不可不可)'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p> <p>소 동서씨어터 정기공연 '척하지 마세요' 20:00 1만 5천원 · 1만 2천원 동서씨어터(320-1916, 010-7736-1910)</p>	<p>11/1</p> <p>중 부산시립극단 제 33회 정기공연 '불가불가(不可不可)' 16:0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8)</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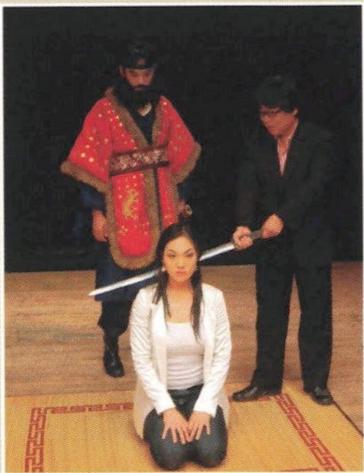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불가불가(不可不可) 히온 줄 아뢰옵니다.”

“아니 대님, ‘불가불, 가’ 요, 아니면 ‘불가, 불가’ 요?”

부산시립극단 제 33회 정기공연

불가불가(不可不可)



은유와 상징을 통한 충격적 무대표현으로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 시적인 감성과 실험성이 공존하는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여온 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채운일' 이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 첫 작품으로 '불가불가(不可不可)' 를 선택, 10월 30일부터 3일간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1987년 초연 당시 대한민국 연극제 희곡상(1987), 서울 극평가그룹상(1987), 동아연극상(1988), 백상 예술 대상(1988) 등을 수상하며 연극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불가불가(不可不可)' 는 현대적인 극 양식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직시해온 극작가 이현화와 연출가 채운일 콤비가 이뤄낸 역작이다. 이현화, 채운일 콤비가 20년만에 다시 뭉쳐 2008년 가을, 부산관객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재현이라는 <극중 극> 안에서의 이야기와 현실적인 무대 위의 <연극연습 극> 안에서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극중 극 기법' 으로 전개되는 다소 낯선 연극이다. 한 공간(무대)에서 대조적인 두 가지의 장면(상황)이 동시에 펼쳐지며, 하나같이 우리민족사의 수난기가 재현된다. 우리 역사에서 굵직한 사건인 황산벌전투, 무신정변, 십만양병설, 을사조약 등이 당대 지도자의 갑론을박 속에 아픈 상처의 편님을 드러낸다.



'불가불가(不可不可)' 라는 뜻은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불가불(不可不, 가(可))' 와 '불가(不可), 불가(不可)', 즉 허가의 의미와 불허의 의미가 공존한다. 따라서 듣는 이의 해석여하에 따라 찬성의 의사로도, 반대의 의사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불가불가' 의 무대는 어떤 연극의 무대 연습장. 총연습에 열중하던 무대위에



서 전혀 뜻밖의 돌발사가 발생한다. 사건인즉, 극중 장군역을 맡은 신인 배우가 상식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적대감정도 없는 선배 배우를 극중 소품으로 내려 쳤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단지 총연습과정에서 보여지는 우리 역사의 편린들과 그 흐름의 콤마다 발돋움해 가는 그 신인배우의 심리추이를 짚어 어떤 긍정을 추출해 볼 따름이다.

‘불가불가’의 작가 이현화는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요한을 찾습니다’ 당선과 함께 KBS-TV에서 드라마 PD로 활동을 했다. 1976년 중앙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작품모집에서 ‘쉬-쉬-쉬-잇’이 입상하여 자유극장에서 김정옥 연출로 공연을 가졌다. 1977년 ‘누구세요?’로 문학사상 신인작품상을 수상한 이현화는 이 작품을 필두로 1978년 영희영극상, 한국연극영화예술상, 서울극평론가그룹상, 1979년 현대문학상, 1984년 대한민국 문학상, 1987년 대한민국 연극제 및 서울극평가그룹

희곡상, 1988년 동아연극상 작품상,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이현화는 원래 해답의 작가가 아니라 질문의 작가이다. ‘누구세요?’ ‘쉬-쉬-쉬-잇’ ‘카텐자’ ‘산씻김’ 등 그의 작품에는 우리 모두가 은밀하게 숨겨온 수치스러운 내면을 까발리고 헤집어놓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그의 그런 질문의 전위적인 극형식은 우리 극문학사에 빛나는 획을 긋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현화 작가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어온 연극계의 작은 거인 채윤일은 그동안 독창적이며 독보적인 연출력으로 그의 작품에 생명력을 더하여 왔다. ‘불가불가’는 1982년에 탈고되었고 1987년 채윤일에 의해 초연되어 대한민국 연극제 대상을 비롯하여 여러 상들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혼란이 가중되는 세상을 향한 질문 ‘불가불(不可不), 가(可)’, ‘불가(不可), 불가(不可)’에 대한 명쾌한 답은 10월 30일~11월 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찾을 수 있다.



반갑습니다



세계를 난타한 문화 CEO **송승환**

난타, 달고나, 대장금으로 이어진 공연 신화

“어린 시절 보았던 공연의 감동은 집으로 오는 길에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연문화를 세계에 알린 세계적인 문화 상품 ‘난타’ 신화를 이룩한 문화 CEO 송승환. 공연계에 화제를 몰고 다니는 굵직한 작품들을 제작, 만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송승환 씨가 주크박스 뮤지컬 ‘달고나’로 부산관광객들과 만난다.

1970~80년대 인기 가요들이 뮤지컬에 녹아들어 있는 ‘달고나’는 중년들에게는 추억을, 20대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환상을 주는 작품이다.

“어느덧 달고나가 막이 오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70~80년대를 산 사람이라면 ‘달고나’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입안에 살살 녹아드는 그 달콤함처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달픈 중년들에게 아련한 추억과 삶을 바라보는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 ‘달고나’를 제작했다는 그는 7080 세대들이 당시의 음악을 들으며 이루지 못한 꿈과 사랑을 추억하고 새로운 삶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창작뮤지컬은 어려운 작업이다. 전문 뮤지컬 작곡가가 곡을 써도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음악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익숙한 곡으로 음악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고 70~80년대 추억의 곡들로 뮤지컬을 구성하게 되었다. 2004년 소극장에서 연말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달고나’는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 대극장 뮤지컬로 탄생되었다.

우리나라 순수 창작뮤지컬 사상 최초로 일본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한 ‘달고나’는 일본에서 1년간의 기획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일본의 ‘라모네’라는 추억의 음료수를 제목으로 하는 뮤지컬 ‘라모네’로 탄생되었다.

‘달고나’는 1970~80년대 화려한 시절을 보낸 송승환의 열정으로 탄생된 작품이다. ‘달고나’를 제작한 PMC프로덕션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넘버벌 퍼포먼스 ‘난타’를 탄생시킨 문화 벤처기업으로 1996년 12월 문화전문가인 송승환 씨와 경영전문가인 이광호 씨가 좋은 공연(Performance), 좋은 뮤지컬(Musical), 좋은 영화(Cinema)를 만들기 위해 설립했다. 1997년 비언어극 ‘난타’를 제작, 큰 성공에 힘입어 국내 최초 전용관을 개관하고 브로드웨이 장기공연을 갖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현재 PMC프로덕션은 365일 사랑받고 있는 ‘난타’와 주크박스 뮤지컬 ‘달고나’, 2006년 한국 뮤지컬 대상 최다 노미네이트에 오른 ‘뮤직 인 마이 하트’, 뮤지컬의 한류를 개척하고 있는 고궁뮤지컬 ‘대장금’,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난타, 호두까기 인형, 가루야 가루야 등 굵직한 화제작들이 많다.

세계를 난타한 ‘문화 CEO 송승환’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음에 ‘열정’이라고 답한다.

그는 1965년 아역 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교사 출신인 엄격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했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연기생활을 접고 학업에 전념해 한국의 국어대 아랍어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진학 후 무대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젊은 연극인들과 모여 ‘76소극장’을 만들었고 1985년 유학을 떠나기 전 까지 76소극장 단원으로 활동했다.

예나 지금이나 ‘배우’는 그에게 천직이다. CEO로, 명지대학교 교수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1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연극을 하던 시절,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고 새벽에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던 힘든 시절을 잊을 수 없다.

연극배우로 그는 1982년 ‘에쿠우스’로 백상연기상, 1994년 ‘영원한 제국’으로 서울연극제 남자연기상, 1998년 ‘남자충동’으로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1998년에는 ‘난타’로 한국뮤지컬대상 특별상과 한경 마케팅대상 프런티어상을 수상했다. 난타는 현재 3개의 전용관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우수한 공연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트’라는 작품을 통해 배우로 부산시민들과 만난 그는 언제나 시원하게 펼쳐진 부산 바다를 좋아한다. 부산에서 PMC프로덕션의 작품들을 많이 공연하고 싶지만 공연장 여건이 맞지 않아 그동안 내려오지 못해 안타까웠다는 그는 부산에 국제영화제가 성공한 만큼 좋은 공연축제도 부산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 제작자의 입장에서 그의 계획은 역시 좋은 작품을 만드는 일.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난타’의 경우처럼 그는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관객들과 호흡하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달고나’의 달콤함처럼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송승환과 PMC의 달콤한 유혹이 있어 우리는 행복하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달콤한 추억의 주크박스 뮤지컬

달고나

- 10월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화제의 뮤지컬 '달고나'가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무대로 펼쳐진다.

그 때 그 시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음악들,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더욱 애뜻한, 보석 같은 시간들 속으로 떠나는 달콤한 추억의 주크박스 뮤지컬 '달고나'

는 '사랑은 비를 타고', '동송동 연가' '오 해피데이' 등의 화제작을 발표한 오은희 작가의 감성과 세계를 난타한 문화 CEO 송승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1970년대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낸 연출자 자신의 지난 추억을 되살린 '달고나'는 초연될 당시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2005년에는 서울연극제에서 '관객이 뽑은 인기상'을 수상하며



대중성까지 인정받아 화제를 모았다. 2006년 3월부터 대학로에서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유율 80%이상을 유지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았다.

(주)PMC 프리덕션의 연말 공연 레퍼토리로 사랑받은 '달고나'는 3년간 소극장공연을 거쳐 한층 화려해진 무대, 짜임새 있는 연출로 2006년 대극장용 작품으로 변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호평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더욱 달콤해진 내용으로 새로운 연출, 그리고 새로운 실력과 배우들과 함께 한층 더 성숙한 작품이 되어 관객들과 만난다.

'달고나'는 추억의 가요들이 가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뮤지컬이다. 큰 성공을 거둔 맘마미아의 재미를 뛰어 넘어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가요가 공연 무대 위에서 세우, 지희의 지난 사랑 이야기와 함께 재미있게 전개된다. 설탕이 녹아들어 노란 달고나가 부풀어 오르듯, 우리의 가요가 극에 녹아들어 관객들은 노래에 취해, 이야기에 취해 젊은 날의 꿈과 사랑, 삶을 나누어온 인연들, 함께 숨쉬었던 시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달고나에 수록된 뮤지컬 넘버는 모두 24곡. 작은 별 가족의 '나의 작은 꿈'을 비롯 7080 세대들이 공감하는 다양한 곡들이 스토리에 녹아있다.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던 주인공 세우는 오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옛 물건을 판매하는 홈쇼핑 구성 작가가 되었다. 늘 똑

같은 일상에 지친 세우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첫 사랑의 추억이 아로새긴 구형 타자기를 홈쇼핑에 내놓는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옥상위의 몽블랑 소녀'에게 팔린 타자기. 이 소식을 들은 세우는 순간 첫사랑의 소녀 지희가 떠오르고, 어떤 절박함에 이끌려 어릴 적 추억의 공간으로 되돌아 온다.

익숙한 풍경에 젖어들 때쯤 세우의 기억 속 어디선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삼촌의 하모니카 소리, 그 소리를 시작으로 하나 둘 씩 깨어나는 지난날의 추억들과 잊혀진 꿈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이름, 지희. 이제 세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로의 달콤한 추억여행을 시작한다. 지난날의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추억 속 우리 가요들과 함께.

뮤지컬 넘버

- | | |
|----------------------------------|--------------------------------------|
| #1. 나의 작은 꿈 : 노래 '작은 별 가족' | #13. 이등병의 편지 : 노래 '김광석' |
| #2. 은하철도 999 : 민화 주제가 | #14. 소녀 : 노래 '이문세' |
| #3. 담배 가게 아가씨 : 노래 '송창식' | #15. 사계 :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 |
| #4. 꽃과 어린 왕자 : 노래 '사랑의 듀엣' | #16. 그대 눈물이 마르기 전에 :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 |
| #5. 미인 : 노래 '신중현' | #17. 젊은 그대 : 노래 '김수철' |
| #6. 맨 처음 고백 : 노래 '송창식' | #18. 당신만이 : 노래 '벗님들' |
| #7. 너 나 좋아하나 너 좋아하 : 노래 '현이와 덕이' | #19. 이별이야기 : 노래 '이문세', '고은희' |
| #8. 불티 : 노래 '전영록' | #20. 세월이 가면 : 노래 '최호섭' |
| #9. 골목길 : 노래 '김현식' | #21. 어쩌다 마주친 : 노래 '송골매' |
| #10. 여행을 떠나요 : 노래 '조용필' | #22. 웨딩케익 : 노래 '트윈폴리오' |
| #11. 사랑할거야 : 노래 '이상훈' | #23. 풍경 : 노래 '시인과 촌장' |
| #12. 행복을 주는 사람 : 노래 '해바라기' | #24. 나의 작은 꿈 : Reprise |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다자녀 가정 20% 할인, 국가유공자 50% 할인, 20인 이상 단체 예매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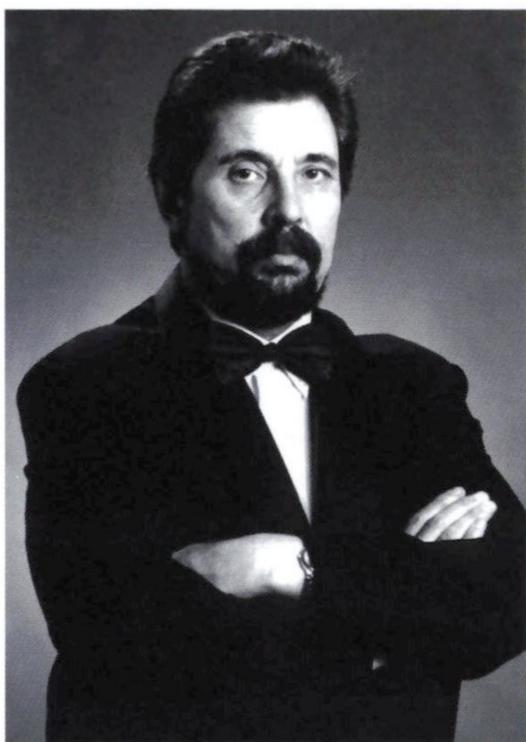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 연주회

러시아의 혼(魂)

마에스트로 V.빠쥐엘스키 초청연주회

- 10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마에스트로 V. 빠쥐엘스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아이다'의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 부산시립합창단이 10월 9일 유럽과 미국이 주를 이루는 현대 음악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러시아 합창음악의 진수로 가을의 문을 연다.

이번 무대를 위해 현재 노보시비르스크 콘서바토리 지휘학과 수석교수이자 예술학과 학생합창단 지휘자로 재직중인 마에스트로 V. 빠쥐엘스키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그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아카데미 국립 오페라 발레극장(NSAOBT : The Novosibirsk State Academic Opera and Ballet Theatre)의 유능한 지도자 중 한명으로 NSAOBT의 수석 합창지휘자, 러시아 공훈 예술가, 콘서바토리 수석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NSAOBT 합창단은 노보시비르스크의 가장 활동적인 연주단체 중 하나로, V. 빠쥐엘스키가 지휘를 맡으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곡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정통연주단체로 발돋움했다.

NSAOBT극장 합창단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V. 빠쥐엘스키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합창곡들에 정통하고 오페라합창에도 재능 있는 음악가로서 극장의 수석 합창지휘자로 12년간 재직하며, 29편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 NSAOBT에 의해 초연된 작품들의 합창은 러시아 United Artist of Russia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합창음악의 정수를 들을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러시아 교회음악 작곡가 체스노코프의 '신의 어머니(성모)' '오, 사랑스럽고 전능하신 예수' '천사가 크게 말한다(합창을 위한 협주곡)'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스비리도프의 '겨울 아침' '거룩한 사랑' '메리', 타네예프의 '세레나데', 러시아 민요 '작은종' '아, 너 넓은 광야' '칼린카'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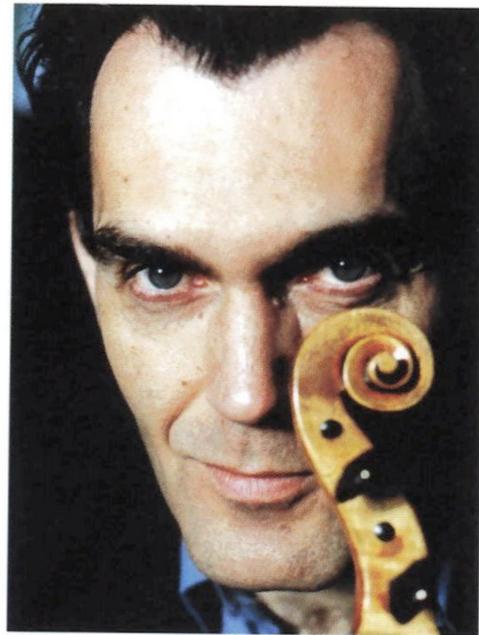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3회 정기연주회

-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완숙기에 접어든 베토벤 특유의 아름다움과 고고한 품위, 장대함 등이 잘 표현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2008년 가을 첫 무대를 연다.

5월 이후 오랜만에 정기연주회 무대에 서는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프랑스 출신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14세 때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주목 받은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파리음악원에서 명 바이올리니스트 피에르 도캥과 피아니스트 장 위보와 함께 수학하였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나디아 블랑제, 예후디 메뉴인, 헨릭 쉐링과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뮌헨,

몬트리올, 헬싱키, 시벨리우스, 프랑스의 자끄 티보와 조지 에네스코 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등 주요한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였으며, 특히 1989년, 뉴욕에서 열린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오디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들려주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은 브람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한 곡으로 널리 연주되고 있는 곡이다.

이 곡 외에도 고전의 절제된 오케스트라 위에 연주되는 화려한 바이올린 기교와 목, 금관, 타악기가 함께 대 편성으로 어우러지는 대작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5번'을 들려준다. 톨스토이의 '인간성의 설정'이라는 말에서 이 곡의 아이디어를 얻은 쇼스타코비치는 곡의 중심에 하나의 인간을 두고 그의 모든 체험을 생각하면서 밝고 명랑한 환희의 세계를 지향하는 경지를 그리고 있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 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가을바람

나 과 나운영(羅運榮)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입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나라 찾아가는 제비불러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락하누나

가을이라 가을 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갈구나
추운 겨울 지날적에 우리 먹이려고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오동 입에 앓아놀던 가을 바람이
살금살금 밭고랑을 기어가서는
종이 입과 뽀삭 뽀삭 얘기하지요
올해도 올해도 풍년이라고

단풍입에 앓아놀던 가을바람이
살금살금 논두렁을 기어가서는
벼이삭과 너울너울 춤을 추지요
올해도 올해도 풍년이라고

앞의 동요는 백남석 시, 현재명 곡의 '가을'이며 뒤의 동요는 박경중 시, 나운영 곡의 '가을바람'이다.

결실의 가을, 풍요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요 '가을'의 둘째절에 '추운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대자연이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표현에 이르러서는 경건(敬虔)한 생각까지 갖게 된다. 우리가 가을에 거둬드리는(秋收) 여러 가지 곡식과 과일, 그리고 열매들은 길고 무더운 여름, 온갖 신산(辛酸)과 고통(苦痛)을 이겨낸 결과물(結果物)이다. 그런데 그 곡식, 그 과일들은 아무런 환가(換價)나 보상(報償)도 없이 송두리째 스스로가 뿌리내린 대지(大地)에게 봉헌(奉獻)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存在)와 스스로가 역사(役事)하게 한 근원(根源)으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치는 장거(壯舉),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서도 극치(極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한편 동요 '가을바람'은 한 폭의 한국화를 보는 느낌을 갖게 한다. 가을의 맑고 밝은 풍경, 풍요하고 화평스러운 정서를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을을 예찬한 시나 노래는 가곡과 동요를 합쳐 수 십 편에 달하고 그 가운데서 제일 많이 애창되고 있는 것은 아마 백남석 시, 현재명 곡의 '가을' 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명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기에 여기서는 박경중 시, 나운영 곡 '가을 바람'을 택했다.

박경중(朴京鐘)은 아동문학가, 동요동인회장, 한글글짓기지도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34년 동흥(東興)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학중인 1933년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동요 '왜가리'가 당선되었으며 졸업 후에는 흥원군청에 근무하면서 아동잡지 '아이생활' 등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194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요 '둥글다'가 입선되었고 광복 후에는 흥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51년 월남하여 상업에 종사하면서 동요, 동화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동문학의 여러 단체에 참여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에도 관여하였다. 동시집 '꽃밭(1951)' '초록바다(1962)' '고요한 한밤(1967)' 등과 동화집 '노래하는 꽃(1958)' '송이골 다람쥐(1963)' '해님이 보낸 화살(1966)' '둘이서만 아는 비밀(1969)' 등이 있다. 그의 동요는 그 자신이 교역자(敎役者)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모든 사물을 따뜻한 애정으로 배려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작곡가 나운영(羅運榮)은 1922년 서울생이다. 1939년 중앙고보 재학시절, 동아일보 주최 신춘문예 현상모집에서 그가 응모한 가곡 '가려나'가 당선작으로 뽑힐 정도로 음악적 감수성이 강한 소년이었다. '가려나'는 담담한 선율의 진행으로 곡의 분위기는 이탈리아 고전파의 작품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이 곡은 젊은날의 순정(純情)을 새긴 것이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전편에 흐르는 정감이 간절(懇切)하고 곡진(曲盡)하기 때문이다. 그는 도쿄제국음악학교 재학 중 모로이(諸井三郎)에게 3년간 작곡을 사사했다.

그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가곡으로는 소월 시에 붙인 '가는 길'이 있다. 이 곡이 작곡된 1945년경에는 해방직후인데도 왜색적인 가요나 저속한 노래들이 범람한 시기였다. 여기 민족적인 향기가 짙은 예술가곡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신념 아래 의도적으로 작곡한 노래가 이 노래이다. 곡은 민요풍의 우리노래다운 첫 장을 열고 있는데 작곡자 자신도 크게 아낀 노래라고 한다. 1946년 작곡한 '달밤'은 낭만적 분위기가 깔려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공명과 공감 속에 빨려들게 한다.

그는 엘토 유경손과 해방되던 해 결혼했고 이 곡은 해방 2년 뒤에 작곡된 것으로 보아 부인에게 바친 사랑의 선물이기도 했던 것 같다. 당시 나운영 부부는 중앙여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노래의 작사는 이 대학의 부학장이던 시인 김태오가 주로 했다. 중요한 것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한국가곡도 서서히 개성(個性)을 정립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나운영도 그러한 경향과 모임의 주요 멤버로 활약한다는 사실이다. 짙은 낭만의 색채나 가락위주의 달콤한 영탄조(詠嘆調)의 노래보다 소리를 새기고 쫓아 조각(彫琢)하는 신중한 음악미(音樂味)의 발굴과 탐색에서 작가의 개성을 높이려는 움직임 말이다.

이것은 마치 1923년 이래 쇤베르크의 12음 기법과 혁신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며, 세대가 가지는 공통된 과제이기도 했던 세리(Serie)기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언제나 보다 현대적인 정신에 경도되었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가곡 '강 건너간 노래(1949)' '별과 새에게(1940)' '접동새(1950)' 등과 6·25 동란 중 부산에서 발행된 제 1가곡집 '아흔 아홉 양(1952)'과 환도 후에 발행된 제 2가곡집 '다윗의 노래(1954)'와 제 3가곡집 '초혼(1964)' 등에서 함축성 있는 음향구조로 치달았다. '강 건너간 노래'는 '달밤'에 이어 그의 낭만적 수법과의 결별을 내포한 가곡으로 토속적 향취가 밀도 있게 깔려있고 선율은 이탈리아 오페라적인 스타일로 처리되고 있다.

가곡 '접동새'는 작곡자 자신도 대표작이라 할 만큼 현대가곡의 지표(指標)로 삼을 수 있는 야심작이다. 그는 소월(素月)시(詩)의 운율을 중시하여 남도의 판소리를 의식한 데클라마티온(Deklamation)의 시도와 가락 위주이기는 하나 대담한 10도 내지 11도의 도약 진행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소리의 치밀한 연결이 절박한 감동으로 엮어져 민속적인 얼을 마구 요동치게 하고 있다.

한편 그는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시편 46편인 '피난처 있으니'와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등은 6·25 피난시에 부산에서 작곡한 것으로 피난처에서 받은 정신적, 물질적 핍박을 참고 이기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고 하겠다.

'오동잎에 앉아 놀던 가을바람이/살금살금 밭고랑을 기어
가서는/종이잎과 뽕싹뽕싹 얘기하지요/올해도 올해도 풍년이
라고'

가을 들녘의 풍경과 정취가 물씬 물씬 풍기고 있다.

북경에 개관한 PACE 갤러리의

동서양 현대미술 (만남)전

박 건 해 | 중국통신원



홍지윤 퍼포먼스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갤러리들이 다투어 문을 열었는데 그중 뉴욕 첼시의 가장 역사 깊고 유명한 갤러리 중의 하나인 PACE(PACE WILDENSTEIN)가 북경 798 내 창의광장 구역에 오픈했다.

PACE 북경 개막전 '만남'전은 현재 중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 시대상황에 관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년 중국 현대예술과 예술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30년의 고속 경제성장과 5천년 문화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물들에 의해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중국 예술은 새로운 위치를 얻게 되었다. 문화 개방 과거 10년 동안 북경은 중국 현대 문화의 비상구였고, 지금은 세계에서 역량을 가진 새로운 발생지로 거듭나고 있다.

'만남'전은 초상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현대의 동서양의 대가들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전시인데 초상은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중국 현대예술은 자신만의 포지션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성과는 초상화에 집중되어 있다. 초상화는 가장 민감한 동시에 급속하게 발전하는 사회간의 다양한 계층의 관계를 가장 쉽게 반영한다.

아시아 중심도시로 변화한 북경에서 이러한 민감한 아시아 초상 작품과 서양의 초상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참여한 작가들은 중국의 장샤오강, 유에민준, 팡리진, 서양은 척 클로스, 앤디 워홀, 신디 셔먼 등으로 현대미술에 큰 영향력을 미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다. 팡리준, 유에민준, 장샤오강은 2003년 아트사이드에서의 전시를 기점으로 한국미술계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작가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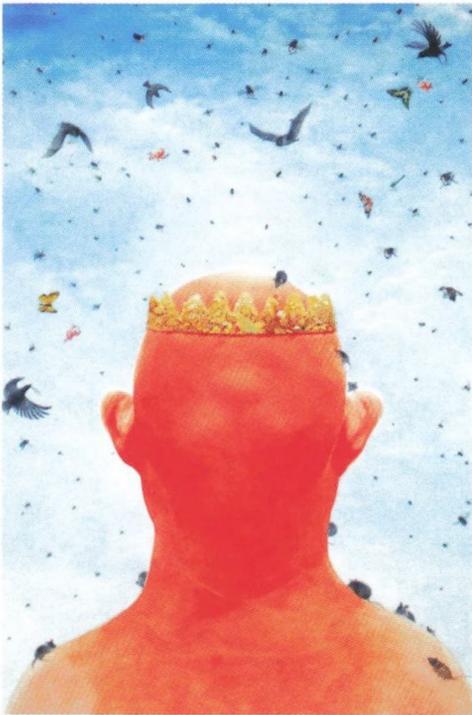
냉소적 사실주의(Cynical Realism)의 대표적 선두주자인 팡리준은 장미빛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가 무너지고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차디찬 시선으로 바라본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모습을 담아낸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개인의 내적 갈등과 거대한 사회구조 사이의 충돌을 엿볼 수 있다. 파란바다, 하얀 구름,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인간, 팡리준은 바다처럼 넓은 열린 공간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분출한다. 1990년대 초기 등장하기 시작한 삭발한 청년의 이미지 속에는 현대 중국사회에 대한 조롱과 기존 가치관에 반항하는 냉소적 시선이 숨어있다.

유에민준은 팡리준과 더불어 냉소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다. 특히 그는 웃고 있는 인물 캐릭터로 유명하다. 사실 이 캐릭터는 자신의 얼굴이다. 마치 광고 모델들의 치아를 드러낸 과장된 미소처럼 그 자신도 하얀 이를 한껏 보이며 웃고 있다. 이 웃음 속에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사회에 대한 조롱 섞인 냉소와 풍자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조롱은 화려한 소비 대중문화의 그것처럼 유쾌한 시각경험을 제공한다. 팝아트의 생동감 넘치는 원색 칼라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복사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바꿔 놓는다.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웃음으로 넘기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태연함과 과장된 너털웃음은 소비 대중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작가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사천성 지방의 화풍은 정치적인 지배 하에 놓여 있던 베이징에 비해 보다 초현실주의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진다. 장샤오강은 바로 이 화풍의 대표적 작가이다. 그는 대가족과 혈통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창백한 얼굴에 공허한 눈빛을 가진 작품 속 인물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의 결속을 소중히 생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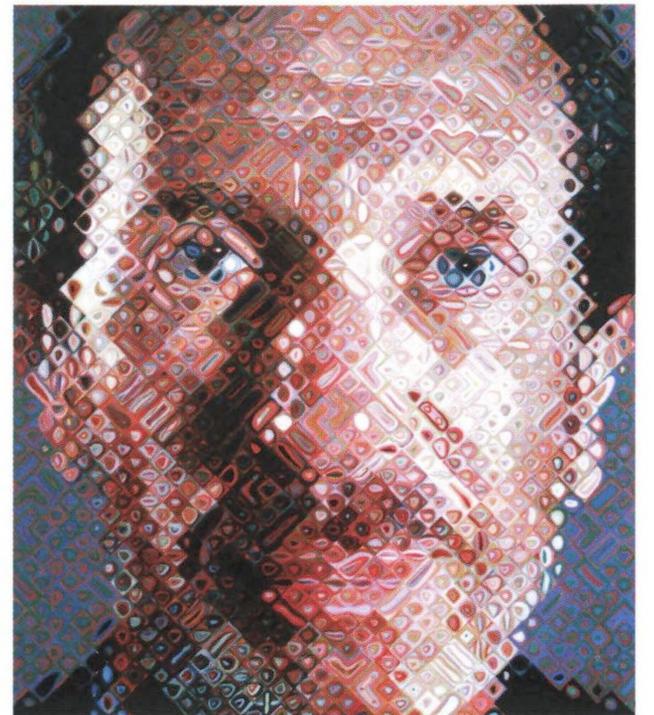
홍지윤 작품-무지개에게 To the Rainbow



팡리진 작



유에민준 작



척 클로스 작

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현실주의와 라틴 아메리카의 판타지 리얼리즘에 심취해 있었던 작가는 인물의 붉은 색 핏줄을 표현하여 가족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드러낸다. 마치 계몽지도처럼 각각의 인물별로 지정된 붉은 반점은 가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다. 인물의 정체성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보조 장치인 붉은 반점은 장샤오강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앤디 워홀 (Andy Warhol)의 작품세계는 대부분 미국의 물질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는 돈, 달러 기호, 식품, 잡화, 여자 구두, 유명인, 신문 스크랩 등을 그렸다. 그에게 이런 주제들은 미국 문화의 가치를 의미했다. 예를 들어, “코카 콜라는 언제나 코카 콜라다. 대통령이 마시는 코카 콜라는 내가 마시는 코카 콜라와 같은 그 콜라다”. 그는 대중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이미지를 이용해 20세기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했다.

1960년대 후반 극사실주의 인물 화가로, 또 사진작가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척 클로스(Chuck Close)는 1972년 이래 지금까지 대형사이즈의 ‘판화 작업’을 30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판화가이기도 하다. 인물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한 그의 판화작품들은 100가지 색을 위해 100개의 판을 만들며, 때로는 한 작품을 위해 2년 이상 판화 공방의 장인들과 공동 작업을 한다. 예술가들의 부수적인 작업으로 행해지던 판화가 그 에겐 회화 이상의 완벽한 매체로 거듭난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은 1954년 출생의 미국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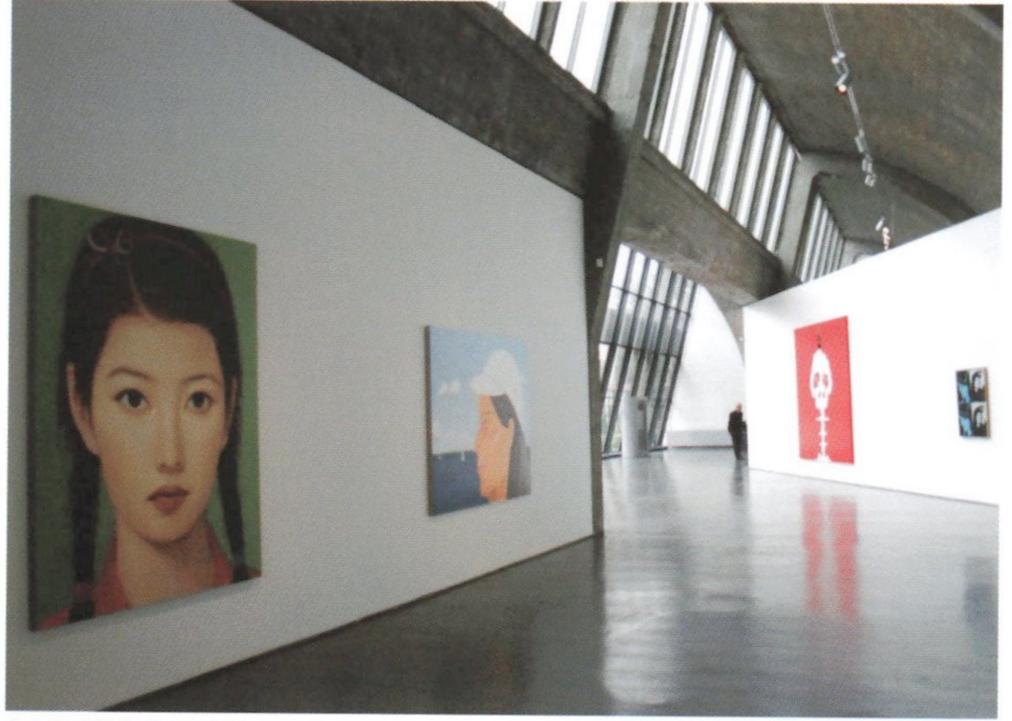
작가로,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사진작가로 꼽힌다. 미국의 대표적 여성작가인 그녀는 영화속에 이미 존재하는 배우나 르네상스 그림에 존재하던 인물 등의 모습으로 똑같이 분장하고 연출한 다음 사진을 찍는다. 그러한 사진 속에서 예술가와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와의 간격을 줄여내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자기 자신을 배우나 모델 등의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인물과 우리 자신을 동일하게 보는 심리를 실현해 보인다.

이러한 동서양간의 작품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발전하는 관계를 전시를 통해서 실현하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직접적이지 않고 은유적이다. 북경의 PACE 갤러리가 북경이라는 새로운 문화코드를 통해 새롭게 세계를 바라보는 창문이 되길 희망한다.

창의광장을 중심으로 PACE갤러리의 맞은편 CUP 갤러리에서는 한국 작가인 홍지윤의 개인전 <染色的香气(2008. 9. 6~9. 24)>을 기획하였다. 북경 798예술구에 위치한 CUP 갤러리는 신인작가 발굴 및 국제 교류전을 목표로 개관한 한국 갤러리이다. 중국 미술계는 1970~80년 이후 출생의 젊은 예술가들의 대거 등장으로 서서히 세대교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예술세계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UP 갤러리는 이러한 신인작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중국 내의 한국 갤러리로서 다양한 한국미술의 흐름을 소개하고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장샤오강 작



PACE갤러리 전시장

작가 홍지윤은 199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1회 개인전과 다수의 주요 그룹전에 참여한 작가로서 동양화계 내에서는 유일하게 '홍지윤의 퓨전동양화'로 인정받은 작가이다. 퓨전동양화는 자연과 삶의 철학적인 단초를 수묵동양화(水墨東洋畫)의 전통인 지, 필, 묵(紙, 筆, 墨)과 시, 서, 화(詩, 書, 畫) 그리고 서화일체(書畫一體)의 개념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회화, 그래픽과 영상으로 재현한다. 또한 현재진행의 시간성 위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열려있는 동양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동양화의 새로운 형태를 실험하고 영역을 확장해 작업을 하

고 있다.

〈染色的香气〉오픈식 행사로 홍지윤 화가와 중국 거문고 차세대 연주자 진웨이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퍼포먼스 공연이 개최되었다. 100여명의 관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진웨이의 거문고 연주를 시작으로 공연이 시작되었고 홍지윤은 수묵과 아크릴, 다양한 꽃과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환상적인 그림을 선보였다. 공연이 끝난 뒤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들이 50미터의 긴 천에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흥미로운 퍼포먼스 활동 시간도 가졌다.

창의광장 전경



우리나라 고서의 아름다운 능화판 책표지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우리나라 고서(古書) 표지에는 아름다운 능화 꽃들이 가득 피어있다.

‘책에는 향기가 있다’는 성현의 표현처럼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표지디자인에서부터 함축되어 피어나는

것이 느껴진다. 하긴 다산(茶山) 정약용선생은 곡산부사로 부임하면서 자녀들의 면학을 독려하기 위해 ‘책의 향기를 맡고 먹의 맛을 보라’는 의미로 ‘서향묵미각(書香墨味閣)’이라는 이름의 누각을 지었다고 하니 책의 향기로 표현되는 선조들의 책 사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어쩌다 고서를 대할 때 책 겉장을 아름다운 무늬를 박아 장식한 능화판(菱花版) 표지는 판화를 하는 내게 아주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능화판은 일반적으로 마름꼴의 각종 무늬를 목판에 새겨 눌러 밀랍을 칠하여 책의(冊衣)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목판을 말하는데, 책판 혹은 책판문양으로 부르기도 했다. 마치 서양에서 유래된 양장본의 책표지에 프레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엠보싱 효과를 내는 것과 비슷한 기법의 의장용(意匠用) 판화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인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한 적이 있는 독창적

인 우리문화유산이다.

‘능(菱)’은 우리말로 마름이라 한다. 마름이란 식물은 연못이나 물웅덩이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물속에서 가느다란 줄기가 자라 물위로 나오면 삼

각형 잎이 뭉쳐서 돌아나 사방으로 퍼지면서 수면을 덮는데 마름꽃은 사엽화(四葉花)이다. 마름무늬는 ‘인동초화당초문(忍冬草花唐草紋)’의 한 형식으로 우리나라 고대미술의 장식무늬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불교에서는 넝쿨 식물인 능화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영원성과 윤회를 상징한다고 여겨 일찍부터 건축, 창틀 장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능화는 실제 꽃이 아니라 능화판에 많이 등장하는 기하학의 마름모꼴 사방연속무늬를 말하기도 한다.

언제부터 능화판이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래 불경의 포장(包藏)장식을 위해 고려시대부터 목판활자의 발달과 더불어 책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능화 모양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문양은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었다.

우리선조들은 책의 장정(裝幀)을 꾸미는 일에 유별난 관심을

보였다. 책 표지의 능화무늬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거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것이었다.

책 표지를 찍는데 사용되던 문양(능화)판 제작과정은 일반목판 제작과정과 비슷하다. 용이가 없어 잘 새겨져야 하므로 박달나무와 피나무, 배나무, 거제도, 울릉도에서 나는 거제수, 감나무, 피나무, 행자나무 등이 애용되었다. 또 가을이나 겨울철에 벌목해서 해수에 수년간 결을 삭혀 방충하고, 소금물에 삶아 나무진을 뺀 다음, 수년 동안 비바람에 노출시켜 말려서 뒤틀림을 방지하고, 세밀한 무늬를 판각하기 좋게 판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판의 크기는 만들고자 하는 서책의 크기보다 넉넉한 크기로 양 옆에 여백의 나무귀를 두어 찍어낼 때 손잡이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목판이 준비되면 목판에 문양을 직접 그리거나, 종이에 그린 문양을 목판에 뒤집어 붙이고 밥풀을 이겨 풀손으로 문질러 종이를 얇게 벗겨 문양이 잘 드러나게 한다. 문양이 잘 드러난 목판에 각수(刻手)가 조각칼로 문양을 양각 또는 음각으로 새기는데, 특히 세밀한 문양이 많은 경우에는 조각칼의 날이 단단하고 날카로워야 하며, 세밀한 문양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뭇결의 방향을 유념해서 잘 새겨야 한다. 책 겉표지의 재료로는 종이, 베, 비단 중에서 종이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한지 3~5장을 합친 배접지에 치자 물을 들여 사용하면 책의 외관이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좀도 슬지 않는 이점이 있다. 치자 물을 곱게 들인 백면지(白綿紙)에 약간 축축하게 물을 뿌려 능화판 위에 붙이고 밀랍(蜜蠟)을 칠하고 밀돌로 힘껏 문지르면 목판에 새겨진 요철의 아름다운 무늬가 도드라져 나타난다. 그런 다음 잘 말려 인두로 다려 밀랍이 종이에 배이도록 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재단하고 이면에 한지를 붙여 책 표지를 완성한다. 이렇게 정성을 들인 표지를 다섯 곳에 구멍을 뚫어 실로 엮어 결책(結冊)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 '오침안장정법(五針眼裝訂法)'의 책을 묶는 방법은 두꺼운 능화판표지와 함께 우리 고서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능화판이라 불리는 목판 중에는 책의 표지 외에도 벽지나 반자판에 무늬를 박아 넣을 때 사용하는 채화판(綵花版), 보자기에 날염하여 무늬를 넣는 날염판 등이 있는데 그 기능과 용도는 각기 다르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찍이 인쇄술이 발전하게 된 연유 중 하나가 판화의 기법을 일상생활 속에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능화판은 생활의 멋을 위한 필수품으로 관민을 비롯하여 사찰, 사원, 사가(史家) 등에서 각양각색의 문양을 판각하였다. 이러한 문양들은 유교, 불교 또는 책의 주제 및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용되었다. 또 능화문에 등장하는 동식물이 의미하는 속뜻을 살펴보면 무척 재미있다. 연꽃은 청정세계, 석류와 포도는 다산, 모란은 부귀, 나비는 기쁨, 좋은 부부, 다섯 마리 박쥐는 오복, 쌍어문(雙魚紋)은 다산, 풍요, 부부금실, 잉어는 험한 물살에 거슬러 오르는 호전성, 인내심 또는 등용문의 뜻을 나타냈다.

책표지에 목판 문양을 찍는 주목적은 미적인 장식성에 있었으나 종이를 압축함으로써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적인 장점도 중시되었다. 또 특히 문양이 찍힌 부분의 도들 무늬는 만질 때 전해지는 독특한 촉감으로 고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을 주기도 한다.

능화판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현대에 와서는 서양식 제본기술의 도입으로 설 자리를 잃고 점차 사라졌다. 간혹 족보간행이나 표지디자인 등에 응용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생활문화 속의 드러나는 능화판 무늬들은 우리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문양으로서 단색조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절제의 미를 내포한 우리 민족의 창조적인 미학으로 현대적 이미지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는 것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포은(圃隱) 정몽주의 시문집 표지 :
연속된 원 안에 능화



퇴계(退溪) 이황의 연보 표지 :
사격회자문에 연꽃, 능화, 보상문



여산 송씨 가보 목판본(19세기) :
사방연속능화문 · 능화

여성인권, 평등가족을 외치다

극단 아지매

평범한 '아지매'들이 열정과 끼로 뭉쳤다. 그동안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던 주부들이 무대 위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지난 6월 '극단 아지매'의 첫 발을 내딛었다.

아직 창단공연조차 올리지 못한 새내기 극단이지만 극단 결성만으로도 벌써부터 주위의 관심이 대단하기만 하다. 단원 대부분이 연기 경험 하나없는 평범한 아줌마인데다, 무엇보다 '여성과 인권'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연극단체이기 때문이다.

극단 '아지매'는 지난 2월 (사)여성문화인권센터가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연극교실 수강생들이 주축이 되어 탄생됐다. 6월 공식 창단한 후 지난 8월 가진 신규단원 모집에서는 20여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

현재는 17명의 단원이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여 '연극'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며 땀을 흘리고 있다. 단원 대부분이 4, 50대의 주부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무대위의 삶에 마냥 설렌다. 극단 '아지매'의 가장 큰 언니인 단원 백옥이(59세) 씨에게도 배우로 사는 요즘이 무척 행복하다. 몇 해전 무대에 올려졌던 연극 '뿌리'에서 단역으로 무대를 경험했던 그는 이후 연기에 대한 갈증을 달래기 위해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연극교실을 수강하면서 극단 아지매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빼놓지 않고 연습에 참가한다는 그는 연습이 있는 목요일이



매주 기다려진다.

11월 정식무대를 앞두고 있는 극단 아지매는 이미 지난 5월, 창단을 앞두고 (사)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제 3회 열린가족문화제'에서 '평등가족'을 주제로 한 짤막한 단막극을 선보였다. 별다른 연습기간 없이 즉흥극으로 올려진 이날 무대에서 단원들은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우러나는 애드리브로 참석한 아줌마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연기지도를 맡고 있는 극단 자갈치 대표 이상우 씨도 내심 단원들의 배짱과 연기에 놀랐다고 한다.

극단 아지매의 첫 정식무대는 11월 22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리는 놀토한마당이다. 가정폭력에 힘겨워하는 가족들의 새로운 희망찾기를 그린 '희망편지(가제)'를 첫 작품으로 정하고 요즘 연습이 한창

이다. 더블캐스팅을 통해 전 단원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는 '아지매'는 12월에 있을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공연'(12월 8일~11일)과 '2008 부산인권문화제'(12월 12일)에서도 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부들의 자아실현 뿐 아니라 여성인권에 무관심했던 여성들에게는 인권교육의 장으로서도 활용된다"는 (사)여성문화인권센터 사무국장 석영미 씨.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극이라는 장르를 통해 일반 관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여성인권과 평등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극단 아지매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한다.

■문의/극단 아지매(363-3838)

아르헨티나 II

탱고의 꽃, 반도네온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탱고에 담겨 있는 격렬한 감정의 흐름은 선율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독특한 악센트가 실린 인상적인 리듬 속에 항구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서민들이 지냈던 고독과 우울, 그리고 걱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둡고도 강렬한 분위기는 반도네온(bandoneon)이라는 악기에 의해 채색되어 왔다.

아르헨티나 탱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시절 탱고 단체의 리더로 활약했던 많은 명인들이 반도네온 주자였고, 'New Tango'의 시대를 열어 탱고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피아졸라 역시 뛰어난 반도네온 연주자였다. 다른 장르의 음악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탱고를 탱고답게 만드는 '탱고의 꽃'이라 할 만한 악기가 바로 반도네온이다.

초창기의 탱고는 악기 편성에 있어 정해진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 기타와 플루트,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으로 연주되며 구조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피아노가 합류하고 반도네온이 등장하면서 음악적인 완성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탱고 연주의 전형적인 편성은 반도네온 두 대, 바이올린 두 대, 피아노 한 대, 베이스 한 대의 6인 편성이 표준적이다. 여기에 반도네온과 바이올린 연주자가 줄거나 늘면서 변화를 주기도 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비올라나 첼로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흔히 아코디언과 비교되는 반도네온은 독일에서 아르헨티나로 건너 온 악기이다. 1830년 경에 등장한 콘체르티나를 원형으로 보고 있으며, 하인리히 반트(Heinrich Band)라는 사람이 만들어 내었다. 1850년 경 아코디언과 콘체르티나의 원리와 특징을 이용해 이 악기를 완성한 그는 자신의 이름과 아코디언을 섞어 반도니온(bandonion)이라 이름을 붙였고, 1860년대 중반부터는 대량 생산도 시작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선원들과 이민자들에 의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전해져 반도네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탱고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10년경부터 탱고의 대표적인 악기로 떠오르면서 한 세기를 지나는 오늘날까지 탱고와 그 운명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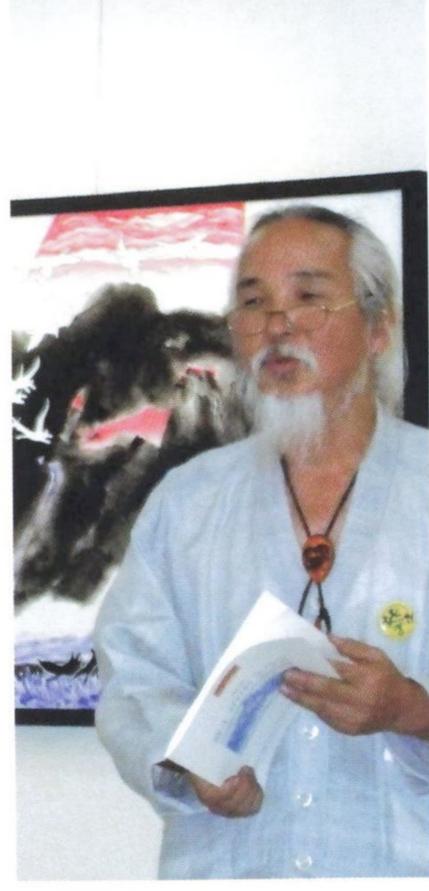
해 오고 있다.

아코디언과 늘 비교되기도 하는 반도네온은 겉모양에서부터 연주방법까지 완전히 다르다. 가운데 주름부분을 열고 닫으면서 연주하는 방식은 같지만, 반도네온에는 양쪽의 사각형 상자에 단추들이 달려 있다. 건반으로 선율을 연주하고 단추들을 이용해 화음을 내는 아코디언과는 연주 방식이 확연하게 틀리다. 반도네온의 단추들은 모두 각각의 단음을 소리 내게 만들어져 있는데 연주자의 방향에서 볼 때 왼쪽이 저음, 오른쪽이 고음을 연주하는 단추이다. 하지만 양쪽 상자에 3, 40개 가량 씩 자리 잡고 있는 각 단추들은 보통의 건반악기들처럼 음계의 높낮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같은 단추를 눌러도 주름부분을 닫을 때와 열 때 각각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의 난이도는 아코디언과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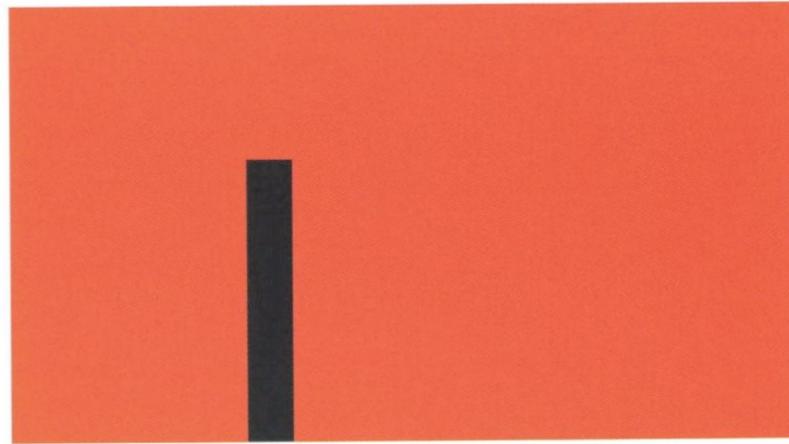
한편 감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네온이라는 악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음색일 것이다. 아코디언과 비교하자면 음의 밀도가 대단히 높아 무겁고 어두운 색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탱고 음악의 특징 자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는 탱고 연주자들에게는 말 할 것도 없고 감상자들에게도 특별한 영감을 전한다. 또한 그 어떤 악기도 흉내 낼 수 없는 반도네온의 음색과 표정은 탱고 음악이 춤추기 위한 음악에서 감상을 위한 예술적인 음악으로 변화해 오는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감상자들을 매료시켜온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피아졸라의 음악이 전통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의 음악 속에서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도시가 지닌 우울한 서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반도네온이 여전히 음악적인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탱고의 꽃으로 불리며 탱고와 그 운명을 같이 해 온 반도네온.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탱고의 격정적인 비애감을 이처럼 강렬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악기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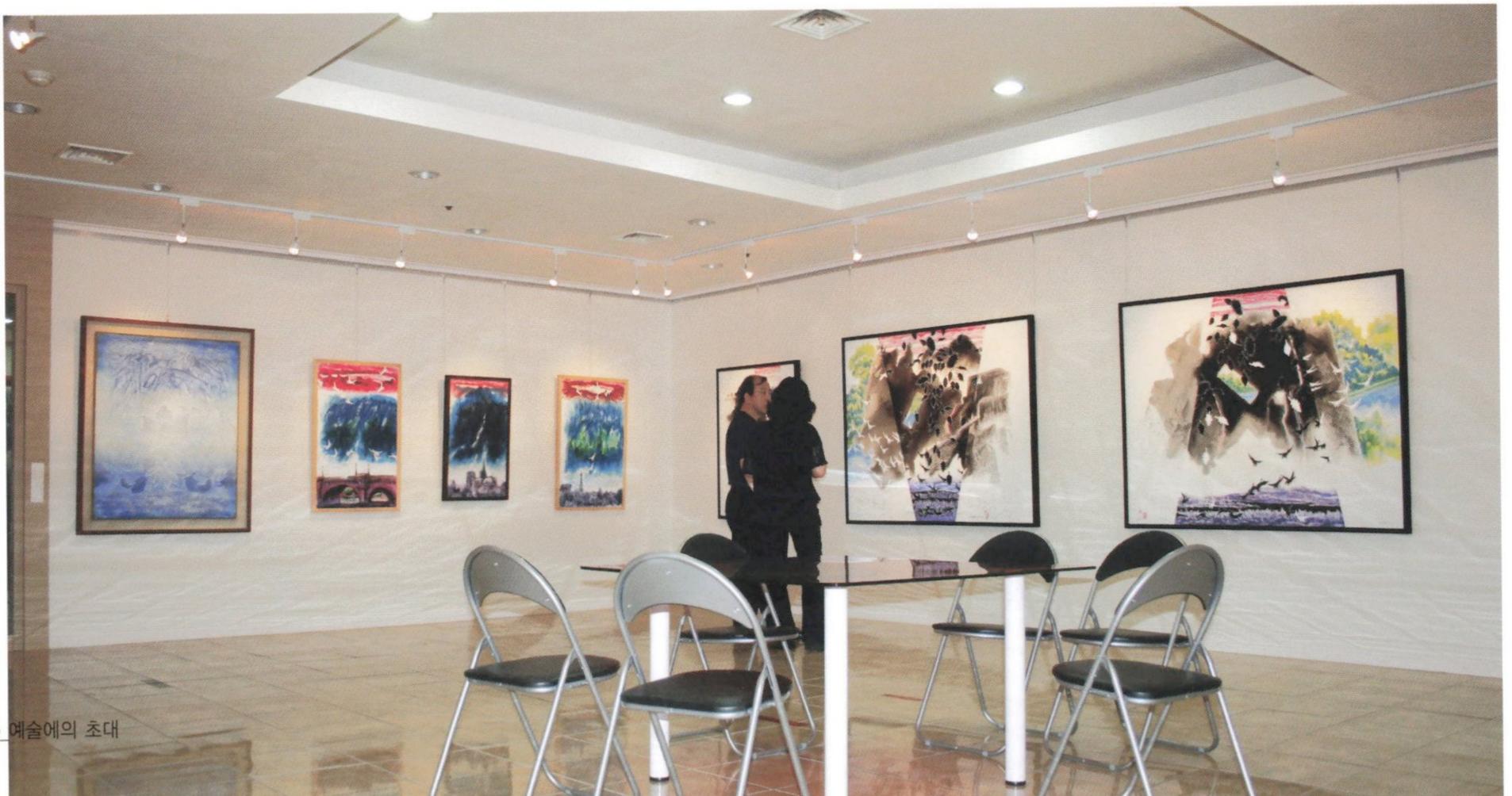


대 안 문 화 공 간



자·인自·人

자연을 생각합니다. 인간을 생각합니다.





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북구지역에 한줄기 단비같은 소중한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지난 9월 2일 문을 연 대안문화공간 '自·人',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공존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향유하자는 의미를 담고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대안문화공간 '自·人'은 화명동 북부고용지원센터 인근 상가 한켠에 자리잡고 있다. 낙동강과 금정산이 어우러지는 화명동은 최근들어 신형 아파트촌으로 변모하면서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다. 바로 대안문화공간 '自·人'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인 셈이다. 특히 문화적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곳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순한 미술전시 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대안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안문화공간으로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自·人'은 현재 기획위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비평을 전공한 동의대학교 박만준 교수를 책임기획자로, 민미협 부산지회 대표 배인석,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무국장 전중근, 민주주의 사회연구소 김하원 소장,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노은희,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성근 사무국장, 동의대학교 이을상 교수, 음악평론가 정두환 등 각계 인사 20명이 그 뜻에 동참하고 있다.

대안문화공간 '自·人'에서는 개관기념 초대전으로 자연과 사람을 작품에 담아온 '소두 김인환 생명전'을 개최하고 있다. 10월 7일부터는 '인간'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기획전 '소외와 소통전'을 개최한다. '소외와 소통전'에서는 소외와 소통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일상에 주목해온 작가 김황수, 이인철, 강영순, 김형대, 김덕진의 작품을 전시한다.

또 10월에는 북구에서 주최하는 북구거리축제 사생대회 입상작 전시회도 갖는다. 이어 11월에는 대안문화공간 '自·人'이 등지를 틀고 있는 화명동 지역의 화가들을 초대한다. 화명동, 그곳에 살고 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화명동 화가들

의 이야기전'은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전으로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自·人'이 북구지역의 유일무이한 문화공간인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이 언제나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랑방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제 개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아직은 '自·人'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뜸하지만, 인근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점차 이어지고 있어 전망이 밝다.

“앞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적 예술문화 활동을 지향하면서 진보적 신인작가를 발굴하고 이밖에도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시민을 위한 문화강연 및 강좌 등 앞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대안문화공간 '自·人'의 실무기획자 김소라씨. 문화콘텐츠 기획 및 문화비평을 공부한 전공자이기도 한 그는 앞으로 '自·人'이 우리사회의 끊임없는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문제와 최근 가장 큰 관심으로 대두한 먹거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담론을 형성하고 그 실천적 대안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 문의/대안문화공간 自·人

- ☎ 051-365-3675
- 카페 cafe.daum.net/zainspace



피터 아블론스키 피아노독주회

대극장 | 10월 2일 목요일 오후 8:00

20대의 무서운 신예에서 30대의 젊은 거장으로 거듭난 피아니스트 피터 아블론스키 부산연주회.

데뷔당시 길 샬람, 막심 벤젤로프와 더불어 21세기를 주도할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던 피터 아블론스키는 북

유럽의 정서를 함축하는 피아니스트로 과장되지 않은 청명한 연주와 곡 해석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18세에 데카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의 지휘로 거쉬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라선 피터 아블론스키는 옥타비아 레코드와 데카에서 많은 음반을 녹음했고 그 중 아쉬케나지 지휘의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음반은 에디슨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쇼팽 피아니즘의 진수를 보여준다.

프로그램

하이든/ 소나타 라장조

그리그/피아노 소나타 마단조 작품 7

쇼팽/마주르카 올림다장조 작품 24 II, 스케르쑈 제1번 등 수곡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10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아대학교 교수로, 화음 챔버오케스트라와 실내악단 화음의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세계적인 첼리스트 나탈리아 구트만의 동양 최초의 제자인 이명진은 독일 에센국립대학에서 현악과 최초로 최고 성적을 기록,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프로그램

쇼팽/녹턴, 왈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3 다장조 등 수곡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청소년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008 대학합창 페스티벌

10월 3일~10월 5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의 성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대학합창페스티벌' 두 번째 무대로 시민들에게 친숙한 한국, 이태리, 독일가곡, 오페라 아리아, 미사곡 등으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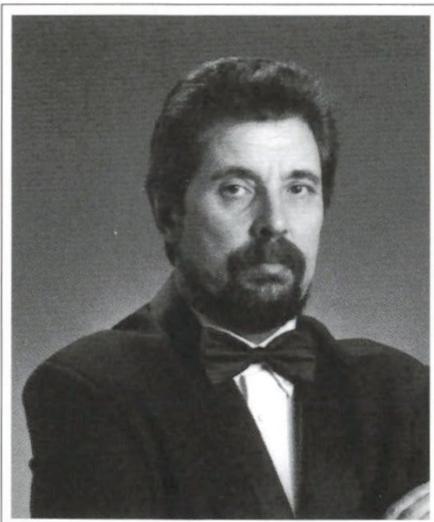
■ 참가 단체 및 일정

· 9월 23일(화) 동아대학교 · 10월 3일(금) 인제대학교

· 10월 4일(토) 동서대학교 · 10월 5일(일) 신라대학교

관람료 초대

문의 (사)부산광역시 음악협회(634-1295)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 연주회 러시아의 혼(魂) -마에스트로 V. 빠쥬엘스키 초청연주회

대극장 | 10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노보시비르스크 콘서바토리 지휘학과 수석교수이자 예술학과 학생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V. 빠쥬엘스키 객원지휘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유럽과 미국이 주를 이루는 현대 음악에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

는 러시아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합창곡들에 정통하고 오페라합창에도 재능있는 음악가 마에스트로 V. 빠쥬엘스키와 함께 러시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체스노코프/ '신의 어머니(성모)' '오, 사랑스럽고 전능하신 예수' '천사가 크게 말한다(합창을 위한 협주곡)'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스비리도프/ '겨울 아침' '거룩한 사랑' '메리'

러시아 민요/ '작은종' '아, 너 넓은 광야' '칼린카'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10월 6일(월) 국제회의장 러시아 합창음악의 거장 '마에스트로 V. 빠쥬엘스키 초청 세미나' 주제 '러시아 합창음악의 세계'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로맨틱 뮤지컬 내마음의 품금

10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0월 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대극장



16살 늦감이 초등학교 홍연이와 23살 총각선생 강동수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로맨틱 뮤지컬 내마음의 품금 부산 무대.

최고의 뮤지컬 스타 오만석과 2008년 기대주 조정석이 총각선생님으로, '홍연'

역에는 '맘마미아'의 이정미와 신예배우 장은아가 열연한다.

· 극작/이희준 · 작곡/김문정, 최주영 · 연출/조광화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55,000원

B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예술기획 자유(1599-9210)

부산통기타리스트 제 14회 정기공연

10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2001년 8월 29일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산 모임으로서 탄생한 동호회 '부산 통기타 리스트'의 제 1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몽계구름, 그대 그리고 나, 바다새, 우리는 기도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통기타리스트 남상석(019-402-5880)

향사회 제 43회, 44회 정기작품 발표회

10월 6일-10월 7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 경남지역 작곡가들로
결성된 향사의 정기 작품
발표회.

이번 무대는 새 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지역 작곡단체
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개최한 <제 1회 향사회 작곡
콩쿠르> 대상(大賞) 수상자인

신민정의 'Trio for Clarinet, Violin and piano'와 아울러 이화여자대
학교 윤승현 교수의 위촉 작품을 발표한다.

■ 제 1일 10월 6일 실내악의 밤

프로그램

- 김자경/피아노 5중주 '인연'
- 오세일/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가락'
- 배진의/더블베이스 솔로를 위한 '청풍-초여름에 초원에 부는 강한 바람'
- 백현주/Reconciliation(화해) 등 수곡
- 연주/방효준(바이올린), 김희정(바이올린), 광대희(첼로), 김진희(피아노), 황남용(클라리넷), 박지웅(더블베이스), 원준연(클라리넷) 외

■ 제 2일 10월 7일 관현악의 밤

프로그램

- 윤승현(위촉)/String Orchestra
- 김윤희/Listen to Movie I(love)
- 정승원/관현악을 위한 별리
- 김종태/교향조곡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백현주(010-4585-2052)

배학수 클래식기타 연주회

10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1973년 브라질로 유학, 상파울루 부
에노음악원에서 기타 연주법을 공부하
고 귀국, 클래식 기타 대중화를 위해
활동해온 배학수 클래식 기타 연주회.

배학수는 우리나라 클래식 기타 1세
대인 클래식기타리스트 배영식의 아들
로 8세부터 클래식기타 가족의 대를
이어 오고 있다.

프로그램

- 빌라-로보스/Preludio No.1
- 바흐/사론느

배영식/Arirang을 주제로 한 Korea Fantasy 등 수곡
· 찬조출연/남상대, 권정혜, 박영철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배학수(205-3780), 박영철(011-593-3676)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3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완숙기에 접어든 베토벤 특유의 아름다움
과 고고한 품위, 장대함 등이 잘 표현된 베토
벤 바이올린협주곡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

향악단 제 443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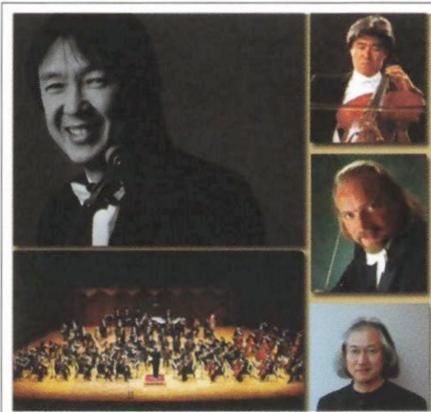
5월 이후 오랜만에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프랑스 출신의 정
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14세 때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해 주목받은 올리비에 샤를리에는 파리음악원에서 명 바이올리니스트
피에르 도캉과 피아니스트 장 위보와 함께 수학하고 나디아 블랑제, 예후디 메뉴인, 헨릭 셰링과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프로그램

- 베토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61
-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5번 라단조 작품 47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올리비에 샤를리에(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제9회 간염 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Love & Friendship'

대극장 |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연주자와 대한간학회와 GSK
의 우정을 바탕으로 마련되는 제9회 간염 없는 세상을 위한 강
동석의 희망콘서트.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의 첼리스트 조영창, 프랑스를 대표하여 클래식계를 이끌어가는 플루티스트 파트릭 갈루
아, 히코타로 야자키가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출연진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
보인다. 평소 각별한 우정을 쌓아온 강동석과 조영창이 들려주는 화려한 브람스 이중협주곡, 베헤이의
플룻 콘체르토와 도플러의 미국풍의 주제에 의한 듀엠티노같이 결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보석 같은 플
룻 명곡들이 세계 플룻의 거장 파트릭 갈루아의 숨결로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

프로그램

- 베버/오베론 서곡
- 브람스/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 데오도르베헤이/플룻협주곡 제1번 라단조, 작품 43 등 수곡

■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 의 영앤앳섬(02-720-3933)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2008 뮤직박스 뮤지컬 '달고나'

대극장 | 10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2004년 소극장 작품으로 출발, 2005년 서울연극제에서 '관객이 뽑은 인기상'을 수상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의 뮤지컬 '달고나' 부산무대.

2006년 3월부터 대학로에서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객석 점유율 80%이상을 유지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은 '달고나'는 3년간 소극장 공연을 거쳐 한층 화려한 무대와 짜임새 있는 연출로 대극장 무대로 변신, 화제를 모았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여행을 시작하는 세우, 지희의 이야기와 함께 추억 속의 가요 뮤지컬이 펼쳐진다.

- 프로듀서/송승환, 이광호 · 작가/오은희 · 연출/차태호
- 출연/설성민, 임강희, 정나운, 이태희, 이나나, 김보민, 윤종인, 차미리, 김민수, 김지연, 김자애 외
- 뮤지컬 넘버/나의 작은 꿈, 은하철도 999, 담배 가게 아가씨, 꽃과 어린 왕자, 미인, 맨 처음 고백,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불티, 골목길, 여행을 떠나요, 사랑할거야, 행복을 주는 사람, 이등병의 편지 등 수곡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기념 부산시민과 세계해군이 함께하는 한마음 특별공연

10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은결

부산시립무용단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기념하여 국내외 참가 장병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특별 무대로 1부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부 이은결 마술공연, 태권무, 비보이 · 퓨전현악 공연이 펼쳐진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해군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 (679-6061~4)

제 12회 예음회 정기연주회

10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난해 창단 10주년을 맞아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하는 무대로 큰 박수를 받은 예음회의 제12회 정기 연주회.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 2번 작품 17(2Pianos)

생상/아메리카(2Pianos)

포레/돌리 등 수곡

· 연주/김경출, 정안선, 김은아, 방정애, 박혜란, 이은지, 우수정

관람료 초대

문 의 정안선(754-2291, 016-545-2291)

피아니스트 김정자 초청 독주회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한국 음악계의 1세대로 현재 보스턴 콘서트바토리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자의 초청 독주회.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각광받고 있는 김정자 교수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진지함과 탁월한 구성력, 음색에 대한 섬세함을 통해 묻어나오는 피아니즘의 정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월광 올림파단조 작품 27 제 2번

브람스/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9

베토벤/소나타 바단조 작품 57 등 수곡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문 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Ladies do it !'

중극장 |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소속의 여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의 제2회 정기연주회.

탄탄한 연주력과 품격 있는 음악성을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2006년 창단 이후 정기 및 특별연주회를 통해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및 을숙도문화회관 초청 연주회, 쌈지 콘서트, 태교 음악회, 장애우를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가져온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팝, 동요, 영화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다.

프로그램

바하/하프시코드와 현악을 위한 합주협주곡 라장조 작품 1054

니노 로타/현을 위한 협주곡

포레/파반느 작품 50

하이든/첼로 협주곡 제1번 다장조 중 제2, 3악장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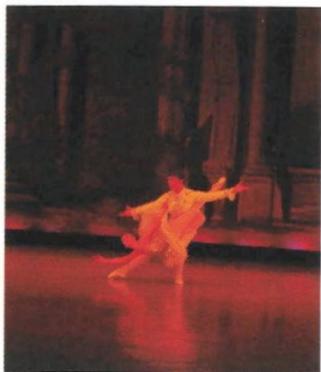
· 협연/양욱진(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부산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리더)

· 해설/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한·일 발레교류 2008 심현숙발레단 제 12회 정기공연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발레단, 발레양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며 발레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심현숙이 이끄는 심현숙 발레단과 사단법인 일본 발레협회 규슈북부지부 지부장 사이토 아키라가 이끄는 일본 아사 발레단의 한·일 발레 교류 2008년 무대.

관람료 초대
문의 심현숙(017-857-5080)

부산우드윈드 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리더 클라리넷 원준연, 플룻 최낙주, 오보에 박지연, 바순 여대현, 호른 최영희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우드윈드 앙상블의 제 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J.스트라우스/서곡 '박쥐' 작품 362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중 I. 행진곡 II. 아랍춤 III. 러시아춤 등
· 플룻/이승호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원준연(019-660-3919)

부산피아노연주가 클럽 제 26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10월 13일-10월 15일 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6년 결성, 현재 2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 클럽은 매년 두 차례씩 정기연주회를 열어 신인 발굴과 음악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제 1일 10월 13일 박현정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소나타 가장조 D. 664
포레/벧노래 작품 7 제 6번, 녹턴 작품 63제 6번, 즉흥곡 작품 31 제2번

■ 제 2일 10월 14일 현대 작곡가의 밤

프로그램
코플랜드/엘 살롱 멕시코
바버/소풍 작품 20
박은희/Arirang Variation 등 수곡
· 연주/노현지, 김정화, 허혜정, 김경희, 윤재웅, 조상한

■ 제 3일 10월 15일 슬로와 듀오의 밤

프로그램
멘델스존/엄격변주곡 작품 54
그라나도스/연주회용 알레그로



부산박물관 30주년 기념 레프레르 Piano Concert in Busan -사이토 모리야 & 사이토 케이토-

대극장 |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섬세하고 다채로운 형태의 구성을 살리는 형 사이토 모리야와 대담하고 즉흥 플레이를 펼치는 동생 사이토 케이토로 결성된 레프레르 첫 내한연주회.

데뷔 앨범 '피아노 브레이크' 출시 이후 일본을 비롯 전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각광 받고 있는 레프레르는 부기와 재즈의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레프레르'는 프랑스어로 형제라는 의미이다.

형 사이토 모리야는 12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 15살 때 단신으로 룩셈부르크 국립음악학교에 유학, 7년간 Gary Muller를 사사했다. 귀국 후 작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사이토 모리야의 조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은 자유로움과 성실함을 함께 지니고 있고 독특한 편곡센스는 지금까지 장르에 없는 'Les Freres' 사운드로서 표현되고 있다.

프로그램

Boogie Back to YOKOSUKA, For Kids', Eagle, Ooh See Boogie, Flower Dance, On y va! 등 수곡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부산문화(633-8990)



세원장학문화재단이 마련하는 제5회 세원음악회 명인 3색 어울림

대극장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7:00

부산의 향토기업인 (주)세원이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과 예술진흥을 위해 설립한 세원장학문화재단이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정상급 클래식 스타와 대중 예술인을 초청해 마련하는 대규모 기업 메세나 음악회 다섯 번째 무대.

올해는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김남두, 바리톤 고성현, 국악인 오정해, 가수 주현미 등이 출연, 최선용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가곡/수선화,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 청산에 살리라, 내 맘에 강물

아리아/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 이 마을 제일의 이발사', '황진이' 중 '사랑이 무량하오'

국악가요/배 띄워라, 꽃분네야, 여인

대중가요/비 내리는 영동교, 짝사랑, 아래향 등 수곡

· 오케스트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최선용)

· 특별출연/미즈챔버콰이어

- 관람료 초대(10월 20일까지 신청자 대상으로 추첨)
- 문의 세원장학문화재단(310-5512~4, www.sewongroup.com)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111
 브람스/4개의 소곡 작품 119 등 수록
 · 연주/양정은, 천선미, 조상한, 김병기, 이혜승 & 김은정,
 정광민 & 윤지은, 이경욱 & 정년경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조윤선(010-7795-0035)

27th 한낮의 유U: 콘서트 페르균티 & 팔려간 신부 이야기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중극장



박성완 배수진 김지호

한낮에 즐기는 아름다운 클래식의 향연 유U: 콘서트 스물
 일곱번째 만남. 부산대학교 박성완교수가 지휘하는 부산심
 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그리그 '페르균티'와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로 가을 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희유곡 라장조 K.136
 그리그/페르균티 이야기-아침, 산속의 마왕 궁, 아니트라
 춤, 아라비아 춤, 솔베이지의 노래), 페르균티의 귀향
 스메타나/팔려간 신부 중 '3개의 춤곡' 등 수록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임병원)
 · 협연/소프라노 배수진(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교수)
 테너 김지호(경성대학교 외래교수)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구독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예술기획(0505-700-9798)

부산작곡가협회 제35회 작품 발표회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우리지역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표해온 부산작곡가협회
 의 정기작곡발표회로 올해는 원로 작곡가 김국진을 비롯 최
 삼화, 변태미, 육수근, 김성덕 등 10명의 작곡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을 발표한다.

프로그램

김성덕/Piano Trio No.4
 조희주/피아노를 위한 즉흥곡 2007
 김수정/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최삼화/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김국진/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산(散) '탐매도(探梅圖)' 등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원일(018-505-5689)

32_예술에의 초대

소프라노 서경숙 독창회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탈리아 Lignano
 국제성악 콩쿠르 1등
 과 Liviera della
 Verfilia 성악콩쿠르에
 서 1등을 수상하고 오
 페라 '라보엠'으로 데
 뷔, '동양의 빛나는
 미미' 등으로 이탈리
 아 우디네 신문 문화

면 전면 기사로 극찬을 받은 소프라노 서경숙 독창회.

프로그램

토스티/꿈, 이상
 라흐마니노프/소녀여 꽃처럼 아름답구나, 여기는 좋아요, 노
 래하지마오, 아름다우이여 등 수록
 · 테너/곽성섭 · 피아노/김승환
 · 특별출연/클래식기타리스트 서승완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서경숙(010-2655-6105)

장형준 피아노 독주회 '눈물'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
 학 피아노과 교수로 국내,
 국외에서 독주, 협연, 실내
 악 연주로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장형준 부산연주회.
 장형준은 현재 영국 베드
 포드 국제 피아노 아카데
 미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프로그램

무소르스키/어린시절의 추억, Intermezzo symphonique
 in modo classico, Méditation, Scherzo,
 Une larme, Au Village 등 수록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청소년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코리아 색소폰 앙상블 초청 All 연세 색소폰 앙상블 연주회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코리아 색소폰 앙상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창단
 된 All 연세 색소폰 앙상블과 코리아 색소폰 앙상블이 함께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나라 클래식 색소폰의 선두 주자
 로 자리매김을 한 두 연주단체의 특별한 만남으로 색소폰의
 신선한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 색소폰 Solo/허민규(부산예중 3년), 김종환(부산예중 3학년)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이성환(011-9873-5404)

부산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2001년 부산아마추어스트링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창단, 2006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난 민간 클래식연
 주단체인 부산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제 9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르디/나부코 서곡
 모차르트/플룻 협주곡 KV.184 등 수록
 · 지휘/김정민(동아대학교 외래 교수)
 · 협연/이화선

관람료 초대

문 의 장은정(017-842-6688)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제24회 정기공연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5년 신라
 대학교 현대무
 용 전공자들로
 결성, 부산 동인
 춤패의 시작을
 연 하야로비현

대무용단의 제 24회 정기공연.

프로그램

THE FRAME(안무/박종원)
 바다와여인(안무/임연희)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임연희(010-3511-3128)

제 19회 대학무용제

10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지역 대학
 에서 무용을 전
 공하고 있는 젊
 은 춤꾼들의 열
 정적 무대 2008
 대학무용제.

'21세기 새로

운 문화지형과 춤 예술의 향방'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시
 작으로 5개 대학이 축제의 장을 펼친다.

■ 10월 23일(목)

동아대학교 장정윤(현대무용)-봉래산 중에서
 신라대학교 김정순(창작발레)-벤취
 경성대학교 한은주(현대무용)-리듬속으로
 부산대학교 이윤재(한국무용)-'금삼' 땅, 하늘, 바람의 축제

■ 10월 24일(금)

경성대학교 최은희(한국무용)-일(日). 출(出)
 부산대학교 박은화(현대무용)-놀이(Play-VII)
 신라대학교 정신혜(한국무용)-진리와 욕망
 부산대학교 민병수(발레)-The Legend of Love
 부산예술대학 김희은(현대무용)-Crazy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부산대학무용제 운영위원회(627-7992)

제28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한국 오페라 60년사 - 세계의 오페라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정태미 강학운 권영준

한국 오페라 60년사를 되돌아보는 이번 무대는 이탈리아, 한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의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으로 이루어진 갈라 콘서트를 펼친다.

· 출연/정태미, 전해란, 이윤정, 구현진(이상 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이상 메조소프라노), 강학운, 권오중, 박찬(이상 테너), 김대성, 최기천(이상 바리톤), 권영준(베이스)
 · 피아노/차미소란, 안선애, 정미선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박찬(010-7315-7352)

문금자의 정가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금자의 정가.

프로그램

여창가곡/우조 이수대엽, 우조 우락, 계면 계락, 계면 편수대 등 수곡

· 반주/풍류송애(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관람료 초대
 문 의 문금자(019-559-6119)

기드온콰이어 제 12회 정기연주회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성악전공자와 부산시내 교회의 실력 있는 성가대원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남성합창단 기드온콰이어의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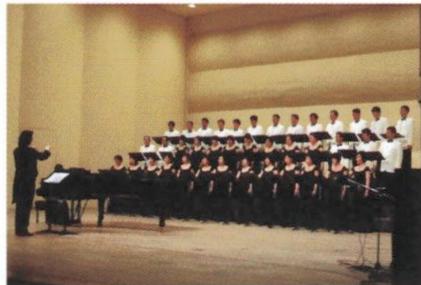
프로그램

생명수 강가에, 채우소서,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은혜 등
 · 지휘/연명희 · 피아노/박중호
 · 특별출연/CBS권사성가단

관람료 초대
 문 의 연명희(011-867-6529)

제2회 뮤즈콰이어 정기연주회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부산대학교 합창단 출신 동문들로 이루어진 뮤즈콰이어의 정기연주회로 뮤즈콰이어의 모태인 부산

대학교 합창단 창단 40주년을 맞아 레퀴엠의 백미로 꼽히는 포레의 레퀴엠 전곡을 선보인다.

· 지휘/조현수(수석지휘자) · 반주/박재나
 · 오르간/양승혜(대신대학교 교수)
 · 특별출연/오혜림(소프라노), 최인식(바리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뮤즈콰이어 총무(240-8127, 019-503-9693)

2008 대학 교향악축제

10월 27일-28일 월-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의 음악계를 이끌어갈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대학교향악축제'.

■ 참가 단체 및 일정

10월 27일(월) 고신대학교, 10월 28일(화) 동아대학교
 11월 10일(월) 신라대학교, 11월 24일(월) 경성대학교
 11월 25일(화) 동의대학교, 11월 29일(토) 부산대학교

관람료 초대
 문 의 (사)부산광역시 음악협회(634-1295)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각 구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축하연주, 한국 청소년 합창콩쿠르 등의 무대를 가져온 부산시 구, 군 여성연합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로 올해는 북구와 금정구, 동래구 여성합창단 3곳 200여명의 단원들이 노래한다.

· 지휘/윤정운 · 반주/이현주
 관람료 초대

문 의 차순남(018-577-3137)

부산시립극단 제33회 정기공연 '불가불가(不可不可)'

10월 30일-11월 1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1982년 작가 이현화와 연출 채윤일이 만나 환상의 콤비가 발표한 '불가불가(不可不可)' 부산초연 무대.

· 작/이현화 · 연출/채윤일(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6~8)

동서씨어터 정기공연 '척하지마세요'

10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현실과 허구를 격리시키지 못하고 연습장을 이수리장으로 만들고 마는 작품 속의 정직한 배우들이 포복절도 할 웃음을 선사한다.

· 작/마리보
 · 연출/박해란, 조기왕
 · 출연/김민정, 임용수, 조용완, 이용록, 정재원, 강동훈, 강수지, 김민선 외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 의 동서씨어터(320-1916, 010-7736-1910)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인~100인)

시민회관



뮤지컬 캐츠 오리지널 내한공연

9월 27일(토)-10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8:00, 일요일 오후 2:00,
7:00 대극장

화려한 무대와 환상적인 안무, 아름다운 노래로 지난 해 총 20만 7천명의 관객이 관람, 최다관객을 동원했던 뮤지컬 '캐츠'가 한국 투어 마지막으로 갖는 부산무대.

관람료 VIP 130,000원 · R석 11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주말 낮 공연은 VIP 130,000원
R석 110,000원 · S석 80,000원
A석 60,000원 · B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제 8회 테너 한남식 독창회

10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영남장로회신학교 교수, 부산총연합 CBMC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테너 한남식 독창회.

부산의 시인, 작사가들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노랫말을 작곡한 원로작곡가 정원상의 '부산연가의 밤'으로 마련된다.

관람료 초대

문의 한남식(011-845-7208)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느낌, 극락같은

10월 14일-15일 화-수요일 오후 4:30, 8:00
소극장

형식에 집착하는 동연과 내용을 추구하는 서연의 삶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극락'이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

· 작/이강백 · 연출/이기원
· 출연/김상훈, 유상훈, 김혜정, 박현형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이기원(017-596-6345)

어린이를 위한 버블버블 공연 & 체험쇼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9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소극장

무대와 객석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비누방울쇼와 관객 체험이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버블버블 공연.

관람료 균일 12,000원

문의 극단 클래식(010-7378-7083)



부산레이디싱어즈 제 3회 정기연주회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2002년 창단 이후 전국합창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레이디싱어즈 세 번째 정기연주회.

· 지휘/손욱 · 피아노/이현주
· 특별출연/덕천 크로체중창단

관람료 초대

문의 손욱(011-9520-4649)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대극장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반달이의 가슴아픈 짝사랑과 순수한 마음을 그린 창작뮤지컬.

· 원작/서광현 · 극작, 연출/박승걸
· 출연/김은주, 김현지, 김주희, 손승범, 김현정, 한다현, 구윤정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9월 30일까지 예매시 50% 할인)

문의 시민회관(630-5200)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 1일 고정화 피아노 독주회

한국피아노학회 부회장,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고정화 독주회.

■ 8일 위드 스트링앙상블 연주회

그동안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위드 스트링 앙상블 무대.

음악을 사랑하고 연주자의 꿈을 키워주는 콩쿨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빌아트홀이 공동 주최하는 제6회 글로빌전국음악콩쿨]

콩쿨 일정 및 부문	10월 11일/성악	10월 18일/피아노	시상	성악부문 전체대상/부산광역시시장
	10월 25일/관현악 실내악	11월 1일/실용음악 작곡 국악		기악부문 전체대상/부산대학교 총장상
	11월 6일/5회콩쿨 전체대상수상자(부산대학교 총장상수여자) 김재원 바이올린 독주회(부산예중 3학년)			성악부문 기악부문 전체최우수상 /부산대학교문화콘텐츠개발원장



GloVil Art Hall 장소: 국제수준 아쿠스틱음향 글로빌아트홀(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243-21 지하철 3호선 미남역 1번 출구) 전 화: 051-505-5995/051-504-5994
접 수: http://www.glovil.org에서 다운로드 후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gbvil@paran.com

■15일 우리가곡연구회 제 20회 정기연주회

1993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세미나, 콩쿨 등을 통해 우리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해온 우리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22일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정기연주회

2008년 현대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창단된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정기연주회.

■29일 이현진 클라리넷 독주회

현재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단원, 부산심포닉밴드 단원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이현진 독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꼬마우체부 북극곰 뭉치

10월 3일-4일 금-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꼬마우체부 뭉치의 여행을 통해 노래로 말하고 소리로 표현하는 어린이 감성체험 음악극.

- 작, 연출/이재원
- 출연/김민식, 한수연, 송주영
- 연주/박채원, 백승숙

관람료 균일 12,000원(기획사 전화 예매시 3,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제 12회 바리톤 우기선 독창회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드렌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700여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리톤 우기선 독창회.

- 특별출연/소프라노 우예진, 바리톤 우성훈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네오뮤지카(017-805-5858)

제 8회 바리톤함도관 독창회

My Life 60 Years, My Music...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연세대학교와 이태리 Arts Academia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함도관 독창회.



함도관은 그동안 7차례 독창회와 '휘가로이 결혼' '팔리아치'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서왔다.

- 특별출연/동의남성들
- 피아노/이동섭(동의대학교 교수)

관람료 초대

문의 고봉수(010-4434-6605)



소프라노 남순천 독창회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으로 있는 소프라노 남순천 독창회.

이번 무대에서는 성가곡과 영국가곡, 러시아민요, 모차르트 C단조 미사 등 가을과 어울리는 서정적인 노래를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의 남순천(010-7458-0153)

2008 정귀인&부산현대무용단 'D-30'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정귀인 교수가 이끄는 부산현대무용단 2008년 무대 'D-30'.



수능시험 30일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한 'D-30'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대학입시 증후군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조명한 작품이다.

- 예술감독 및 안무/정귀인(부산대학교 교수)
- 훈련지도/홍순미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0-1740)
부산현대무용단(010-6859-1126)



제 14회 동아발레단 정기공연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김복선 교수가 이끄는 동아발레단 14번째 정기무대로, 외모지상주의의 병폐를 그린 '잃어버린 얼굴', 발레리나를 꿈꾸는 한 무용수의 성장과정을 그린 '브라보 발레리나' 등 창작발레를 선보인다.

작품

잃어버린 얼굴(안무/유은지 · 출연/유은지, 이성련 외)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Grand Pas de Deux' (재안무 /조혜진 · 출연/조혜진, 이영철)

험연(險言)(안무/주정현 · 출연/주정현, 유성민, 윤세희 외)
Bravo Ballerina(안무/강세영 · 출연/신세정, 조혜진 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연희(010-8508-7377)

<p>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은행</p> <p>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p> <p>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산 : 소 · 중 · 대 · 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 · 중 · 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 · 영지명 출시중 색상불변 선물용최고 <p>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p>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p>	<p>새 소식!</p> <p>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p> <p>세계지도계 초우</p> <p>한국발명특허 획득</p> <p>*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p>★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정지도(값 5,000원)</p>	<p>since  1955</p> <p>문우당</p> <p>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p> <p>문우당서점</p> <p>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p> <p>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p> <p>각종 공연예매처</p> <p>CGV10% 적립 통도원타자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p>
---	---	--

김소희 피아노 독주회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소희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31 제 3번 내림마장조
프로코피에프/토카타 작품 11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 의 김소희(010-7525-2387)



톤인 프리 금관앙상블 정기연주회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1997년 금관 5중주로 출발, 2006년 금관 10중주로 확대 편성된 톤인 프리 금관앙상블 제 8회 정기 연주회.

톤인 프리 금관앙상블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힘차면서도 화려한 금관악기의 매력을 널리 알려왔다.

· 협연/황남용(클라리넷)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김두천(010-2559-7569)

젤로소 플루트 앙상블 제 1회 정기연주회 '추억'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6:00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김인호의 제자 12명으로 구성된 젤로소 플루트 앙상블 창단연주회.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음악, 팝송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이주연(울산대학교 1년)

관람료 초대

문 의 오현주(010-4920-7923)



비르투오조 앙상블과 함께하는 이기녕 작곡 발표회-時's(21century)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석사), 인디애나대학교(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이기녕 작곡발표회.

이기녕은 2000년 Yueh-Fei 국제작곡대회 2위(시곡), 제 3회 한국전자음악협회 주최 컴퓨터음악대회 1위에 입상한 바 있다.

작품

시원, 기억의 축수, 도라지, 용화, funk, 주기도문

· 연주/비르투오조앙상블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6회 정기연주회

10월 22일-23일 수-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피아노 듀오무대의 매력을 선사해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36번째 정기연주회.

■22일 Piano Solo

쇼팽/녹턴 작품 48-1 다단조

뵘/나젤 야회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 3번 등 수곡

· 연주/이동섭, 박정운, 최윤정, 정은정, 조혜영, 이지선

■23일 Piano Duo

림스키 코르사코프/세헤라자데

모뉴슈코/콩트르당스

브람스/왈츠 작품 39 등 수곡

· 연주/제갈삼, 한명희, 나광자, 코다마 사치코, 조현선, 권혜령, 김지령, 김해옥, 최재영, 고영민, 장은경, 박희정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한은애(010-3051-4945)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30주년 기념오페라 온누리오페라단 제 4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사랑의 원자탄'

10월 27일-30일 월-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1940~50년대 격동기를 배경으로, 나환자촌과 애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다 순교한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그린 창작뮤지컬.

· 총기획/이홍길(고신대학교 겸임교수)

· 대본/이영기 · 작곡/이호준

·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 합창/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단(지휘/강재석)

· 출연/허종영, 권영기, 김태경, 김일석, 최기천, 최판수, 서경숙, 공경자, 김윤희, 김현주, 심진선 외

관람료 VIP 100,000원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문 의 이홍길(011-839-1084)



안티슈팀몽(An-ti Stimmung) 제 7회 정기연주회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다양한 타악기와 실내악 편성으로 흥미있는 리듬과 음악을 선보일 안티슈팀몽(An-ti Stimmung)의 7번째 연주회.

프로그램

조희주/피아노와 3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즉흥곡'
정지영/실로폰, 마림바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반향'
김유리/두 대의 마림바를 위한 '흥' 등 수곡

· 작곡/조희주, 정지영, 김유리, 정수란, 진소영, 박기섭, 진영민, 주창근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예술기획(0505-700-9798)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을 함께 만듭니다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1 863-0900
- 동래 메가마트 : 0511 582-0808
- 남천 메가마트 : 0511 622-0815
- 사직동 홈플러스 : 0511 506-7332

정희경 피아노 독주회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3차례 독주회를 비롯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정희경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10 제 2번
슈만/아베크변주곡 작품 1
드뷔시/기쁨의 섬
문의 정희경(011-9535-7728)

부산리코더앙상블 창단연주회

10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소통하는 리코더앙상블과 음악교육을 위해 지난 2006년 창단된 부산리코더앙상블의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비발디/협주곡 가단조 RV356
바흐/바디네리
우첼리니/베르가마스카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강희숙(016-562-6561)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토요일, 일요일 낮공연은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해운대 문화회관

어린이를 위한 국악체험 놀이극 호랑이를 만난 놀부

10월 3일-4일 금-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우리의 전래동화에 판소리, 민요, 탈춤 등을 접목시켜 어린이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된 어린이를 위한 국악체험 놀이극.

· 연출/이덕인

관람료 균일 12,000원(기획사 전화 예매시 3,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꼬마우체부 북극곰 몽치

10월 10일(금)-12일(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단체공연),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꼬마우체부 몽치의 여행을 통해 노래로 말하고 소리로 표현하는 어린이 감성체험 음악극.

관람료 균일 12,000원(기획사 전화 예매시 3,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뮤지컬 루나틱

10월 18일(토)-11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대공연장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집단발표를 통해 그들이 미칠 수 밖에 없었던 각자의 사연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코믹하게 펼쳐지는 뮤지컬 '루나틱'.

을숙도 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초청연주회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8:00 대공연장

9살의 나이로 링컨센터 뉴욕 필 신년음악회에서 공식 데뷔한 후 세계적인 연주자로 사랑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은 그 동안 에이버리 피셔상을 비롯해 그라모폰 어워드 '올해의 젊은 아티스트상', 독일의 '에코음반상', 뉴스위크지가 뽑은 '차세대 여성 리더 20인'에 선정된 바 있다.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B석 3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유럽 전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 콘서트

10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연극대학 인형극학과에서 마리오네트를 공부한 인형극 연출가 김종구의 정통 마리오네트 공연 '목각인형 콘서트'.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창단 19주년 기념 야마오카 시게하루, 히라오 마사코 특별초청연주회

10월 7일 화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일본을 대표하는 리코더와 비올라의 대가인 야마오카 시게하루, 히라오 마사코 부부 초청연주회로 마련되는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창단 19주년 기념 연주회.

· 첼발로/토자끼 히로노

· 리코더/김현진(남문초등 5년)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011-9309-0579, 010-4569-3022)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어드컴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객원지휘자 하주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2회 청소년 협연의 밤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기량이 우수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청소년 협연의 밤.

프로그램

- 박위철(편곡)/옥류금 협주곡 '황금산의 백도라지'
- 김대성(편곡)/가야금 4중주와 관현악을 위한 '천국의 계단' [부산초연]
- 이용탁/북한개량 대피리 협주곡 '대화' [부산초연] 등
- 객원지휘/하주화(서울예술대학 국악학과 학과장)
- 협연/하지희(옥류금), 김기표(대금), 김지영, 서희, 고윤아, 류경화(가야금 4중주), 신현주(가야금 병창), 임동원(북한개량 대피리)

관람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마스크 플레이 뮤지컬 알라딘과 마법램프

10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정교하게 제작된 캐릭터 마스크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무대를 연출하는 마스크 플레이 뮤지컬.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R석 4인 가족석 100,000원 · S석 4인 가족석 6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CJ헬로비전(622-5744)

중소기업 가족을 위한 희망콘서트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희망콘서트.

- 출연/가수 안치환, 해바라기, 인코리아 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윤상운), 소프라노 백선아, 테너 김지호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손욱(011-9520-4649)



예측할 수 없는 사건전개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극적 재미를 더해주는 스릴러 추리극.

- 원작/로벨 토마 · 연출/이기석
- 출연/이기석, 곽태영, 최재현, 김윤주, 정주희, 은정완

관람료 균일 25,000원

문의 (주)아크리브(1566-4315)



제 7회 최석태 작곡발표회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콘서트홀

부산시립합창단 작, 편곡자이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최석태 작곡발표회.

프로그램

- 혼과 트롬본, 트럼펫을 위한 'Stimmungen(기분)', 3편의 가곡-구름, 하늘을 날고 싶다, 그대 그리움, 클라비어 솔로를 위한 7작품, 천상병 시에 의한 '그날은...' 등
- 연주/드리트리 로카렌코프, 정선화, 최선희, 이경미, 김정강, 이상창, 박종관, 손기영, 김판수, 지희원, 윤강희 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석태(019-623-1547)

KBS 부산홀

에픽하이 부산 콘서트

10월 3일 금요일 오후 6:30

관람료 스탠딩석 66,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경성대학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10월 3일(금)-8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예노소극장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The early years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테너 주종식, 바리톤 최성규 듀오콘서트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콘서트홀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테너 주종식과 바리톤 최성규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테너 주종식은 현재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바리톤

최성규는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된다.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최성규(011-564-3439)

부산의 소극장



2008 JUMP 부산

5월 3일(토)-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무술인가족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화제의 년버벌 퍼포먼스 '점프'.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주)아트포(744-4885)

극단 시나위 그 섬에서의 생존방식

9월 17일(수)-10월 18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공휴일 오후 4:00

열린소극장

우스꽝스러운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상황의 반복과 무의미한 말놀이, 절제된 신체적 표현으로 그려낸 창작극.

·작/김지용 ·연출/오정국

·출연/김현진, 박근태, 반필우, 양진철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극단 시나위(554-5244)

그 남자, 보이척

9월 18일(목)-11월 1일(토) 평일 오후 8:00, 공휴일 · 토요일 오후 6:00(일-월요일 공연없음)

사랑과혁명 소극장

비극적 주인공 역할에 빠져버린 한 남자를 통해 사랑과 욕망, 그리고 현실을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그려낸 '그 남자, 보이척'.



·연출/정태윤

·출연/정태윤, 이미정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사랑과혁명 소극장(611-0076)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9월 26일(금)-10월 2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동네 세탁소에 걸려있는 옷 하나 하나에 담긴 소시민의 삶을 잔잔한 감동과 웃음으로 전한다.

·작/김정숙 ·연출/권호성

·출연/조준형, 정래석, 문상희, 차명옥, 문영옥, 김재화, 송효주, 하유미, 허정진, 이문준, 고선정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제 5회 광대연극제

극단 자유바다 서부극을 보러간 엄마

10월 1일(수)-16일(목)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일요일 오후 6:00 너른소극장

공간소극장과 너른소극장, 사랑과혁명 소극장, 엑터스 소극장 등 수영구 지역 4개 소극장이 참여하는 광대연극제 2008년 무대.

마샤 노먼의 원작 '잘자요 엄마'를 우리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으로, 죽음을 결심한 딸과 이를 만류하려는 어머니 사이에 길고도 긴 대화가 펼쳐진다.

·재구성, 연출/정경환

·출연/강혜란, 송민정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제 5회 광대연극제

극단 해오름 바쁘다 바빠

10월 1일(수)-15일(수)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휴관) 엑터스소극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 가족의 일상을 그린 연극 '바쁘다 바빠'는 빠른 극 전개 속에 웃음과 감동을 전해준다.

·작, 연출/이길재

·출연/신준영, 이미애, 이혜진, 김종국, 김도윤, 이세현, 조가비, 김현정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극단 을미 '연가'

전국 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

10월 1일(수)-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에저또 소극장

부산을 비롯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등 전국 12개 지역 극단이 참여하는 전국 소극장 네트워크 페스티벌.

■ 10월 1일(수)-2일(목) 오후 8:00

극단 서라벌(안성) '거미'

극단 서라벌의 '거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인 사이코패스를 통해 비뚤어진 사회를 고발하는 작품이다.

·작, 연출/김효정

·출연/정연승, 문승용

■ 10월 4일(토) 오후 4:00, 7:00, 5일(일) 오후 3:00

극단 놀이와 축제(인천) '고양이춤'

복수를 꿈꾸는 한 남자가 사는 폐가 같은 옥탑방에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변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힘을 그린 작품.

·작/김학균

·연출/진정하

·작곡/지종호

·출연/진정하, 이미나

■ 10월 8일(수)-9일(목) 오후 8:00

극단 들뢰(부천) 뮤지컬 '연가'

삼류배우와 엘리트라는 현실적 조건에 서로 사랑하지
만 헤어져야 했던 두 남녀가 결국은 운명적 사랑임을
깨닫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내용의 뮤지컬 '연가'.

· 작/김용을 · 연출/임성주
· 출연/권유진, 조현정

■ 10월 11일(토) 오후 4:00, 7:00, 12일(일) 오후 3:00

극단 필통(서울) '영종도 38km 남았다'

이 땅이 싫어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순
과 희망찾기를 그린 극단 필통의 창작극.

· 작, 연출/선옥현
· 출연/승의열, 윤상호, 조정환, 임정은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에저또 소극장(852-9161)



제 5회 광대연극제

극단 사계 뮤지컬 사랑할까요

10월 3일(금)-1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휴관) 공간소극장

한 직장에서 평생을 같이 일하며 우정과 사랑 사이를
갈팡지팡 왔다갔다 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경쾌한 음악
과 연기로 풀어낸 창작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 출연/김진욱, 이민영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아르스 스트링 콰르텟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7일 숙음아르떼 정기연주회

숙명여자대학교 동문들로 결성된 숙음아르떼가 마련
하는 피아노 듀오의 밤.

· 연주/조혜영, 김현애, 박정주, 최영은

■ 14일 제 8회 아르스 스트링 콰르텟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 김희정,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하경희로 구성된 아르스 스트링 콰르텟 정기
연주회.

■ 21일 PBC 화요음악회 100회 특집

'PBC 화요음악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열린음악회'

2006년 11월 7일 첫 회를 시작으로 10월 21일 100
회를 맞이하는 PBC 화요음악회 100회를 기념하는 열
린음악회.

■ 28일 '노래하는 하느님의 어린 딸' 공연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극단 이마주 Radio, 잠시 길을 잃다

10월 10일(금)-11월 11일(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용천지랄소극장

엽기발랄 DJ와 함께 관객이 직접 청취자가 되어 공
연에 참여하는 리얼 라디오 토크쇼.

현재 TV프로그램 '좌충우돌 두 남자의 만국유람기'
에 출연중인 배우 김준영씨가 극중 DJ로 출연, 재치만
점 입담을 선보인다.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극단 이마주(752-5547)



마당극 춤추는 고속도로

10월 14일(화)-2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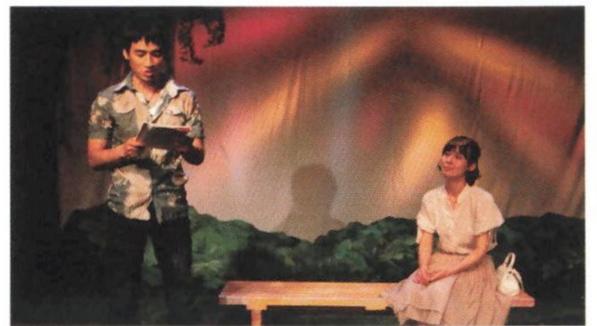
딸만 셋 둔 과부와 무자식 상팔자 홀애비가 만들어가
는 진솔한 삶과 사랑 이야기가 배우들의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펼쳐지는 마당극.

· 작/반민순 · 연출/박성진

· 출연/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박령순, 정영주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14일~16일 프리뷰공연 균일
10,000원)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www.ilter.or.kr)



마지막 20분동안 말하다

10월 16일(목)-11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두 남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애절한 연애 이야기
속에 숨겨진 따뜻한 진실을 담아낸 연극.

· 작/김두용 · 연출/이영석

· 출연/김동현, 정청민, 박모경, 손희승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뮤지컬 19 그리고 80

10월 20일-25일 월-토요일 오후 7:30(수요일

공연없음) 그레이스홀(신부산교회 2층)

19세 청년과 80세 할머니의 평범하지 않은 러브스토
리를 통해 세대간, 사람간의 소통을 그린 뮤지컬.

자발적으로 낸 입장료 전액은 북한어린이 돕기에 쓰
여진다.

· 작/콜린 하킨스 · 각색, 연출/김세환

· 출연/김미경, 최태익, 유상훈, 엄혜린, 김세광 외

문 의 포스커뮤니케이션(627-4113)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빌아트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10회 지역주민과

부산 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글로빌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마련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의 연주무대도 마련된다.

· 해설/신영순(작곡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www.glovil.org)



2008 임현미의 춤 '공명(共鳴)'

10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8:00

민주공원 소극장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작품에 담은 춤꾼 임현미가 사람과 사물의 공명을 화두로 무대에 올린 4번째 창작춤 '공명'.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원향미(010-2756-1962)

행사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10월 5일(일)-10월 9일(금) 부산근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등

항공 모함을 비롯 세계각국의 해군 함정 60척이 펼쳐지는 해상사열과 참가국 함정공개 행사 등이 펼쳐진다.

문의 해군작전사령부(679~6061~4)

2008 부산국제건축문화제

10월 29일(수)-11월 2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888-4760, www.bicaf.org)

전시



박인관 초대전

10월 1일(수)-10월 15일(수) 김재선 갤러리

시공간을 마치 수영(遊泳)하며 자유롭게 넘나드는 기억의 이미지들을 화폭에 담은 신작 전시.

문의 김재선 갤러리(731-5438)



이경순 초대전 '티벳기행'

10월 1일(수)-10월 31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미경이의 놀이터展

10월 1일(수)-10월 31일(금) 가양갤러리

2008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에서 주목받은 신진작가 박미경 작품전.

문의 가양갤러리(752-7830)

인간의 소외와 소통전

10월 7일(화)-10월 31일(금) 대안문화공간 자·인·사

문의 대안문화공간 자인(365-3675)

실상문학작가회 시화전

10월 7일(화)-10월 12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박철교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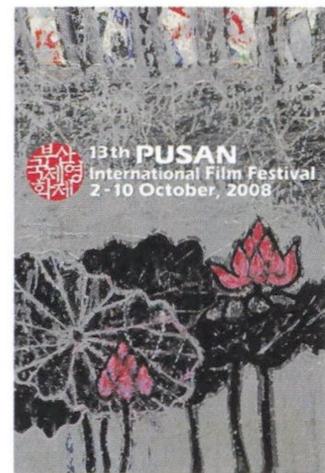
10월 7일(화)-10월 18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영화의 바다를 향해하는 제 13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2일(목)-10일(금)

■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야외상영장 및 부산시내 5개 극장



영화의 바다로 떠나는 2008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2일 열 세 번째 항해를 떠난다.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야외상영장과 부산시내 5개 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2008 부산국제영화제는 60개국 총 315편을 초청, 작품수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다. 특히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월드 프리미어(85편)와 자국에서 상영된 후 부산에서 처음 소개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48편)가 역대 가장 많은 133편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총 11개 부분 공식 섹션으로 진행되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카자흐스탄의 가장 유망한 젊은 감독 루스탐 압드라셰프의 '스탈린의 눈물'. 1949년 카자흐스탄을 배경으로, 냉전과 폭압적 정권의 암울한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인종과 종교, 연령을 초월한 사랑과 신뢰의 긍정적 가치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대하드라마이다.

폐막작은 영화 '소름', '청연'의 윤종찬 감독이 정신병동을 중심으로, 상처받은 인물들의 삶을 투영한 '나는 행복합니다'. 배우 현빈이 도박에 빠진 형과 무기력한 가족으로 인해 상처가 깊은 주인공 만수역을 맡아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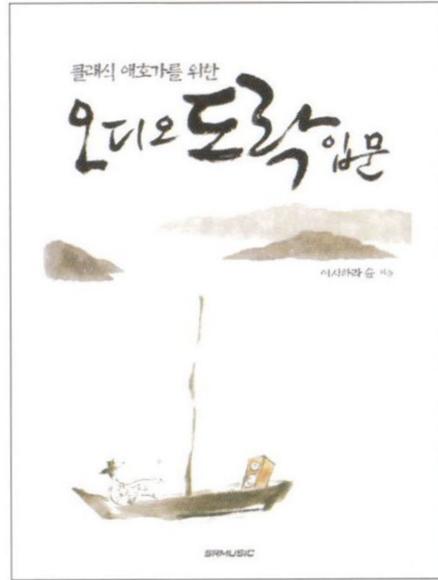
■ 문의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1688-3010, www.piff.org)



디자인 생각

• 박암종 지음 • 안그래픽스
• 395p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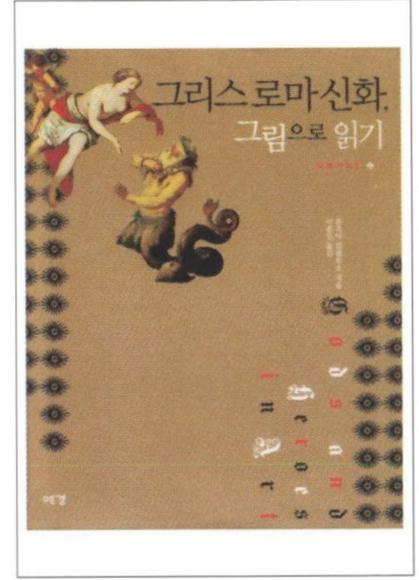
윌리엄 모리스는 책을 인류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삶의 지혜를 담은 그릇으로 보았고, 책의 존재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당대최고의 제작 기술과 예술적 감각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1984년 LA올림픽 픽토그램을 만들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키스 브라이트는 “디자이너는 제작물 한 가지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놓일 장소, 사용할 소비자의 심리까지 생각해서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디자이너사에 관한 오랜 기간의 연구와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각종 디자인 사료들을 모아 2008년 3월 국내 최초의 디자인박물관인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을 설립한 박암종 씨가 수많은 전 세계 디자이너 가운데서도 독특한 디자인 색채를 지닌 60인을 선정 소개한다. 강단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며 활동해 온 저자는 ‘디자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요, 디자이너는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고 믿는다. 창의성을 가진 인간의 기본 욕구는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동반하고 급격한 변혁을 맞이한다. 그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온 디자이너들의 삶과 업적, 그들이 남긴 명언을 엮은 이 책의 풀네임은 <세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60인의 디자인 생각>이다.



클래식 애호가를 위한 오디오 도락 입문

• 이시하라 순 지음 • SRMUSIC
• 255p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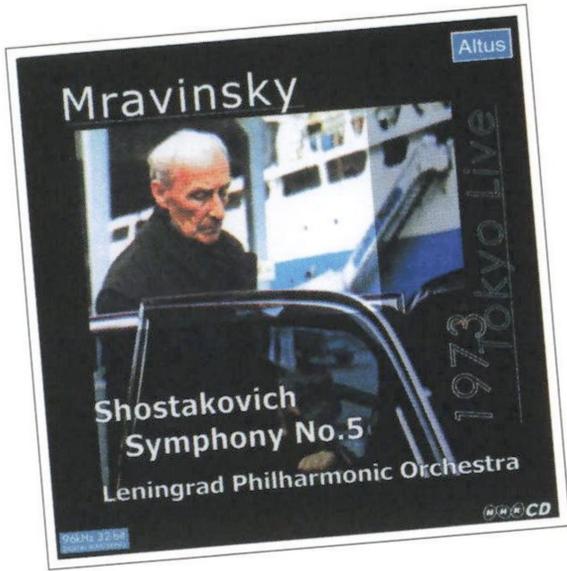
수필가, 번역가, 음악평론가로 활동 중인 이시하라 순의 입문서.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필요하다. 같은 악기라도 연주자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음을 내는 것처럼, 같은 음반이라도 오디오에 따라 음이 다르다고 한다. 오디오의 취미를 즐길 때에는 오디오 이외의 요소들도 중요하다. 오디오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음에는 오디오 그 자체의 지식과 테크닉은 물론, 오너의 오디오 이외의 것에 대한 학식과 전인격적인 역량마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도락’은 클래식음악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클래식음악 중에서 10명의 작곡가(말러, 베르디, 비발디, 바흐, 바그너,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R. 슈트라우스, 브루크너)들의 음악을 선택했으며 이들과 적합한 특정 오디오 시스템을 각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악사, 저자의 경험에 바탕을 둔 초보적인 오디오 관례와 오디오의 역사에 관한 해설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오디오 ‘도락’은 인생을 즐기며 복잡하지 않고 심플한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하여 음악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고 한다. 비싼 돈을 들인 시스템보다, 음악을 즐기는 것이 먼저임을 말해준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으로 읽기

• 루치아 임펠루소 지음, 이종인 옮김 • 예경
• 384p • 19,600원

지구인치고 그리스 로마신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우리 민족의 신화는 몰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어른들을 위한 원전 깊이 읽기 등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어 전 지구인의 필독서같은 느낌마저 든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루는 현대문명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서구문명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영화를 엮어, 신화와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이 미술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루고 있다. 신화 인물들의 이름, 특징, 변신, 교훈 등을 풍부하게 알려주고, 신화의 상징과 상징물들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찾아보기를 가나다 순으로 실어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화를 다룬 영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아 수수께끼 같은 영화의 내용을 쉽게 풀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화 속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매력적인 그림 안내서를 통해 그림 속 신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5번 라단조 작품 47

· 예프게니 므라빈스키 지휘 /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LTUS, 1973년 동경실황 공연)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의 중심가 네브스키 대로(大路)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보금자리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 볼쇼이홀이 자리잡고 있고 그 홀은 다름아닌 소비에트 사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기념홀로 명명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공연장 한 쪽 방에는 쇼스타코비치의 사진과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소비에트 음악계의 기린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들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수많은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주되는 걸작이 바로 '혁명'이란 부제로 알려진 교향곡 5번일 것이다.

베토벤의 위대한 제 5번 교향곡이 담아낸 '고난에서 환희'라는 플롯은 이후 많은 작곡가들에게 커다란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쇼스타코비치의 이 곡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이런 음악적 내용에는 그 당시 그의 상황과도 연계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탁월한 음악적 재능으로 음악원 재학시절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졸업작품으로 발표한 교향곡 제 1번이 서방에서까지 극찬을 받아 단숨에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그는 이후 재즈와 같은 대중음악이나 아방가르드 풍의 전위적 음악을 넘나들게 되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페라 '므젠스크의 맥베드 부인'에서의 퇴폐적인 내용과 전위적 음악이 스탈린의 눈에 거슬리게 되고 1936년 당 기관지 '프라우다'에서의 비난과 함께 커다란 위기에 몰리게 된다. 생존을 위해 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요구하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전하고 계몽적인 음악을 쓰게 되고 이때 나온 음악이 바로 위대한 교향곡 5번이다.

'고난에서 환희'라는 플롯은 쇼스타코비치가 소련당국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기 비판을 통해 사회주의를 찬양한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면

에서 당국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였고 '스탈린상' 수상과 동시에 그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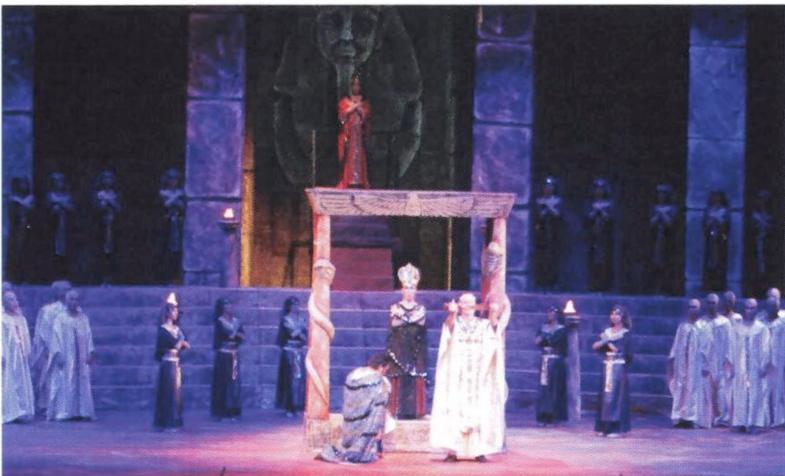
하지만 내면에 있는 예술적 양심마저도 바뀌었을까? 주위 사람들의 증언과 자서전을 토대로 볼 때 그의 승리의 외침은 환희와 희열의 그것이 아니라 이를 가장한 모순과 부조리의 표현, 울분을 삼키며 부르짖는 웃음의 절규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 있어도 남들 앞에서는 웃기고 웃어야 하는 뼈에로의 처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 곡을 연주하는 키워드로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끊이지 않는 긴장감과 시니컬한 풍자의 신랄한 표현, 자칫 승리의 찬란한 팡파레로 흐르기 쉬운 4악장의 비장함과 슬픔을 광기어리게 표현한 므라빈스키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 중에서도 1973년 동경에서 이루어졌던 이 음반이 가장 최고의 연주가 아닐까 한다.

이 곡의 초연자로서의 작품에 대한 통찰력과 확신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며 므라빈스키의 엄격한 지휘봉 아래에서 거의 분신과도 같은 이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테시모, 최저음과 최저음, 각각의 악기들,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순간순간의 긴장감을 서늘하리만치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녹음도 높은 완성도를 들려주며 연주가 끝난후의 관중들의 박수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배려를 한다. 멜로디아나 JVC에서 나온 음반도 뛰어나지만 이 연주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이 줄 수 있는 감동을 가장 잘 대변하는 최고의 음반이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대 성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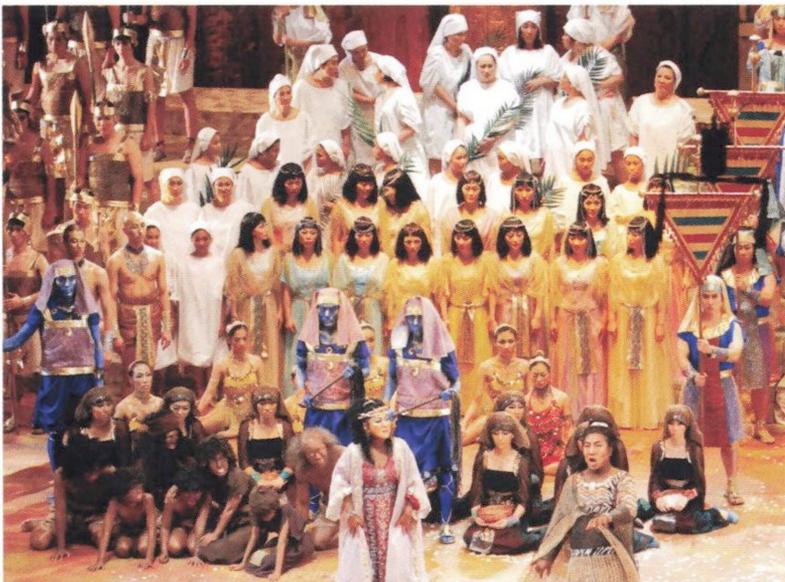
- 5일간 5,276명 관람
- 메세나 운동 전개한 부산은행 감사패 수여
- 부산은행, 부산문화회관에 대형 모니터 2대 기증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9월 3일 막이 오른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가 9월 7일 부산 오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쓴 5일간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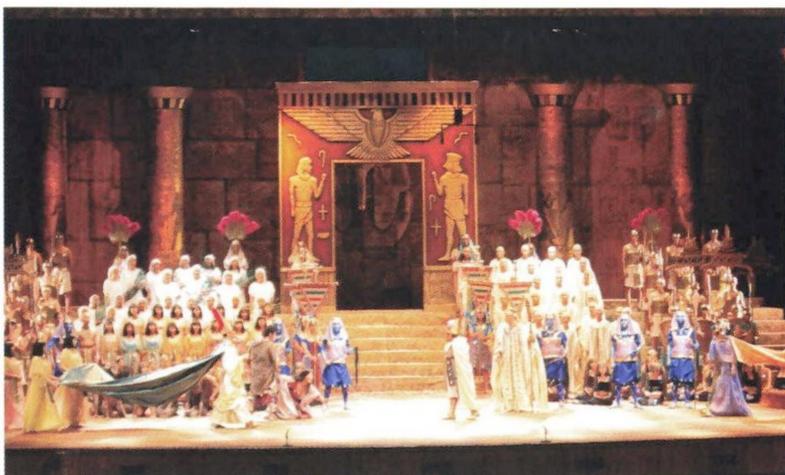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과 솔 오페라단이 공동 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는 부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웅장한 규모와 세계적인 출연진 등으로 공연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5일간의 공연 기간 동안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의장 등 부산의 주요 기관장과 역대 부산문화회관장, 부산 시민 등 5,276명이 아이다를 관람,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아이다'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다.



부산문화회관은 개관 2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9월 3일 개막공연에 이어 오후 11:00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부산시의회 제종모의장,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의장, 솔 오페라 이소영 단장, 테너 피에로 줄리아치, 소프라노 록산나 브리만 등 아이다 출연진과 부산의 문화예술인, 부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빈관에서 개관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부산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메세나 운동을 활발히 펼쳐온 부산은행 이장호 행장과 정기회원 최장기 가입자인 박종술 회원, 청소년 정서함양에 힘써온 성일여고 안선희 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부산은행 이장호행장은 부산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감사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57인치 대형 모니터 기증을 약속, 이날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지난 5일에는 문정수 전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부산문화회관 초대 손승환, 3대 관장 오홍석(현 부산도시공사 사장), 4대 관장 김종해(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6대 관장 박영부, 7대 관장 신윤범, 8대 관장 김인섭, 12대 관장 조현욱, 13대 관장 조병규가 참석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부산문화회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분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Asia Orchestra Week) 참가

부산시립무용단 조선통신사 행렬 행사 2008 '성신교린의 축제-한·일 친선의 밤'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무용단이 10월 일본 동경과 오사카 등지에서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초청공연을 갖는다. 일본 문화청이 출자하는 국가예술제(National Arts Festival)의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대 오케스트라 음악의 현주소를 기념하고, 음악을 통해 同 지역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Asia Orchestra Week)'에 초청받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0월 4일과 6일 도쿄와 오사카 연주회를 위해 3일 도쿄로 출발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를 비롯 97명 부산시립교향악단 전 단원이 참가하는 이번 무대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 데니스 김이 협연자로 함께 공연길에 오른다. 지난 6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약 15개 국가에서 29개 교향악단이 초청되어 2,500여 명의 음악인들이 교류를 가진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는 5만 명에 달하는 관객 수를 기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 파이널 공연 단체로 선정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일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1,632석), 6일 오사카 더 심포니홀(1,704석)에서 연주한다. 올해는 쓰촨심포니오케스트라(중국), 호치민시티심포니오케스트라(베트남)가 함께 초청되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10월 24일 신주쿠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2008 성신교린의 축제-한·일 친선의 밤'에 초청받아 10월 23일 도쿄로 출발한다.

2008 '성신교린의 축제-한·일 친선의 밤'은 한국과 일본의 우호 증진을 위해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작품을 함께 공연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1부 무대에서 천하태평지무, 화중신선으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고 2부 무대에서는 일본의 사미센연주, 무용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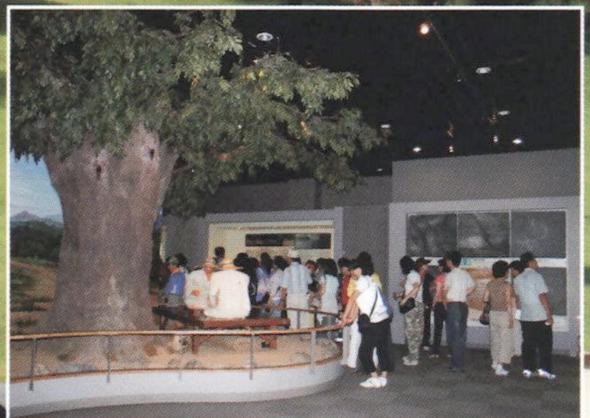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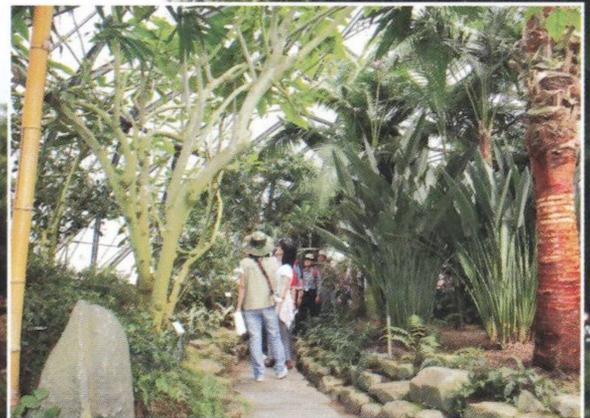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천하태평지무'

칠보화반 '진주비빔밥' 체험과 함께한 충절의 고장 진주 테마여행

9월 여행지는 진주성 대첩의 영웅 김시민과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의기(義妓) 논개의 구국혼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 진주. 한 여름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9월 5일, 기대감과 설렘으로 아침 일찍부터 모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들이 여행길에 올랐다. 이번 9월에는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 이윤희 씨와 부수석단원 김동숙 씨가 여행 길동무로 함께 동석했다.

아침 출근길에 길이 막히면서 예상시간 보다 30분 가량 늦은 10시경에서야 첫 번째 탐방지인 진주성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마중나온 진주문화예술재단 장일영 씨의 인솔로 진주성 탐방에 나섰다. 진주성은 외적을 막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조성한 성으로,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진주성은 선조 25년인 1592년 10월 왜군 2만이 침략해오



자 이에 맞서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800여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힘을 합쳐 물리친,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이 일어났던 곳으로, 이듬해 6월 왜군 10만여 명이 다시 침략해오면서 7만 민·관·군이 모두 순국하는 비운을 겪은 곳이기도 하다.

진주성 내에는 진주의 상징이자 영남 제일의 명승인 축석루를 비롯해 논개의 냇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인 의기사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전공을 새긴 전공비, 진주성을 방어하던 포진지인 포루 등 역사적인 유적지와 임진왜란 전문역사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전체를 돌아보려면 하루가 걸려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장일영 문화유산해설사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리를 옮긴 곳은 진주향토음식연구원. 이 곳에서는 진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인 진주비빔밥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비빔밥은 둥근 낫그릇과 흰빛의 밥, 그리고 다섯 가지 나물이 어우러진 일곱 가지 색상의 아름다운 꽃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예로부터 꽃밥 혹은 칠보화반이라 불리었다. 다른 지역의 비빔밥과는 달리 쇠고기 육회를 곁들여 먹었고, 바지락을 다져 참기름을 두르고 볶다가 물을 넣어 자작하게 끓인 보탕을 곁들여 비비는데, 그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다.

기능장 정계임 원장의 설명과 시연에 이어 4명씩 조를 이룬 정기회원 가족들은 출출한 속을 달래며 준비된 나물을 볶고 무치는 사이 어느새 그릇 그릇마다 칠보화반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색다른 별미에 시장까지 더해져 눈 깜짝할 사이 비빔밥 한 그릇을 푹딱 해치운 회원들의 다음 목적지는 경상남도 수목원.

여름 끝자락 햇볕이 내리쬐는 수목원에 도착한 회원들이 먼저 찾은 곳은 경남수목원 내에 위치한 산림박물관. 지난 2001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우리나라 남부지방 산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는 곳으로, 4곳의 기본전시실과 화석전시실, 자연표본실, 생태체험실, 산림체험학습실을 갖추고 있다. 산림박물관을 나와서는 17만 평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국내외 식물 1,700여종이 서식하는 경상남도수목원을 본격적으로 둘러보았다.

“예전에 수학여행 갔던 학생이 협죽도 가지를 젓가락으로 대신 이용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만큼 협죽도는 독성이 아주 강한 식물이에요... 자귀나무는 부부간 금실이 좋아진다 해서 예전부터 집안에서 많이 심었어요.”

박윤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열대식물원, 난대식물원, 수생식물원 등을 차례로 둘러본 회원들은 함께 동행한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 이윤희 씨와 부수석단원 김동숙 씨의 진행에 따라 우리춤 체조를 함께 하며 하루 여행으로 피곤해진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어냈다. 모처럼 콘크리트 도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이 들려주는 수목원에서 초가을의 여유로움을 맘껏 즐긴 회원들은 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HI 하나

진주여행 안내

- 진주시청(055-743-2114)
- 진주향토음식연구원(055-745-1085)
- 국립진주박물관(055-742-5951)
- ※ 국립진주박물관 12월 31일까지 무료개방
- 진주성관리사무소(055-749-2480)

※ 11월은 **영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10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10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김미내(동래구 명장2동)
김영희(북구 화명동)
김미정(남구 대연3동)
김철민(남구 용호1동)
오란애(서구 동대신동2가)
이명주(사상구 엄궁동)
서은경(부산진구 연지동)
정영애(동래구 안락1동)
제사순(남구 대연5동)

엽서 당첨자 권호경(부산진구 가야2동)
김옥선(연제구 거제 1동)
안정숙(기장군 기장읍)
이 규(남구 용호1동)
이영숙(연제구 거제3동)
이청재(연제구 연산4동)
제양숙(사상구 학장동)
채미정(동구 초량동)
허은진(동래구 온천3동)
홍은희(연제구 연산5동)

100자 토크

국립무용단 발레 '지젤'

꿈이 많은 딸을 위해 '지젤' 공연을 보여주었다. 공연무대가 펼쳐지는 순간 한 폭의 그림에서 나비가 나풀나풀거리며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유명한 발레리노 김용걸님이 출연한다기에 더 설렘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공연 내내 어느덧 소녀가 되어 무대 속으로 빠져버려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유명한 발레리노 김용걸님의 싸인을 받기 위해 40분을 기다리면서 받고 말았다. 지칠 법도 한데 왜 그리 좋은지... 서른 여덟의 가슴 부푼 하루였다.

김귀삼(연제구 연산5동)

오페라 'AIDA'

태어나서 오페라는 처음봤다. 굉장한 공연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이 내가 처음 접한 오페라 공연이라는게 기적처럼 너무 좋았다. 어려울 줄만 알았던 오페라였는데, 그 웅장함과 장엄함에 흡수되어 너무나도 커다란 감동을 안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 공연이 끝난 지금, AIDA를 놓친 이들에게 안타깝다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공연이었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김현영(영도구 봉래동3가)

도요상설무대 '연극 위자료'

버스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책정된 위자료 2천 5백만원. 고인의 명복은 안중에 없고 아내, 동생, 외삼촌은 이 돈을 나눌 생각에 흥분되어 있다. 우연찮게 살아 돌아온 사내가 끼어들면서, 가족간의 분란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서글픈 어머니가 그 돈을 찢어 날려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찢겨져 사라진 돈은 가짜 돈이고, 진짜 돈은 어머니가 두고두고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이은숙(김해시 장유면)

부산시립 교향악단 '청소년 협연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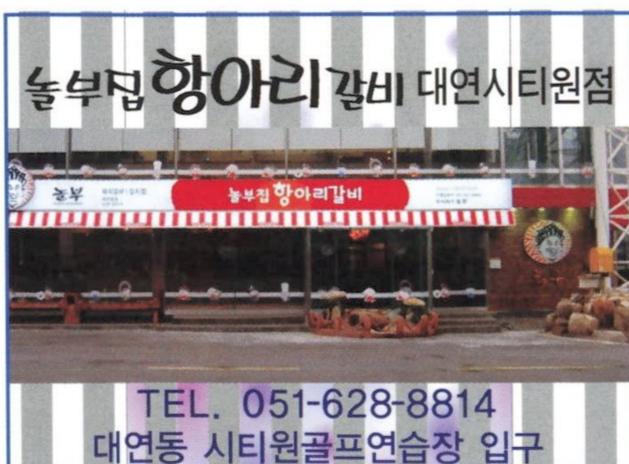
회사를 마치고 급한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며 갔었다. 교향악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연주가 어떤지 판단조차 할수없지만, 교향악이라는 음악은 학창시절에만 듣던 음악이라 나의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모습에 마냥 대견하기만 했고, 어떤 연주회보다도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교향악에 한걸음 다가간 것만 같다.

손성남(서구 서대신동2가)

연극 '해피소드'

연극 '루나틱' 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기에, 원작 '굿닥터' 의 희극작가의 작품이란 소리를 듣고 기대를 하며 '해피소드' 를 보러갔다. 생각보다 좋은 극장에 놀랐고, 다섯 가지의 해피소드들이 엮는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고 모든배우들이 개성있는 캐릭터로 연기를 잘해서 맘껏 웃으며 즐긴 공연이었다.

김현주(부산진구 부암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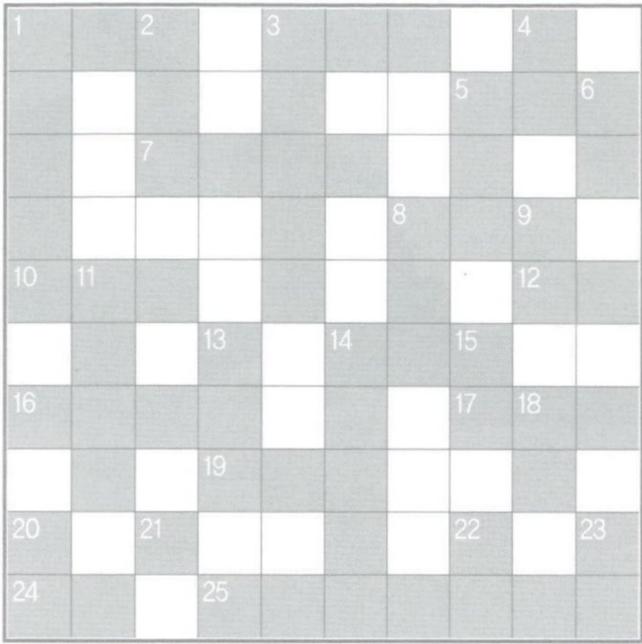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7080 세대를 위한 달콤한 추억의 주크박스 뮤지컬.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으로 10월 18일과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1889년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세워진 철탑으로, 이것을 세운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 우리나라 국기.
- 베르디의 3막 오페라. 호색가 만토바 공작의 시종이었으나 그에게 농락당한 딸을 위해 복수를 다짐하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다.
- 영화 '밀양'으로 2007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최근 신작 '멋진 하루' 개봉을 앞두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있는 몽골의 민속악기. 지난 9월 24일 열린 부산국제민족음악

- 축제에 출연한 몽골국립민속관현악단이 이 악기 연주를 선보였다.
- 눈 깜짝할 사이에 가면이 바뀌는 신기한 중국 전통 가면극.
 -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매의 공지털 속에다 매어 둔 네모꼴의 뿔. 여기서 유래된 말로,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 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경우를 'OOO떼다'라고 한다.
 - 그룹 아바의 히트곡들로 꾸며진 뮤지컬. 최근 메릴 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넬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고대 소설 '토끼전'을 바탕으로한 판소리 열두 마당의 하나.
 - 벨리니의 2막 오페라. 로마 총독과 여제사장 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아리아 '청명한 여신이여'가 특히 유명하다.
 - 산(山)의 옛말.
 -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 지난 화재로 사라진 송례문이 1호이다.
 -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세로

- 티베트 종교, 정치의 최고 지배자 또는 교주를 이르는 말. 살아 있는 부처라고도 불리운다.
- 로마, 밀라노에 이은 이탈리아 제 3의 도시.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도시로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953년 영국원정대가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후, 지난 5월에는 이 곳 정상에서 올림픽 성화가 최초로 올려지기도 했다.
- 웃음을 주제로,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

- 롭게 다룬 연극이나 극 형식.
-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IOC 선수위원이 된 문대성은 000 전 국가대표 선수였다.
 -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 연주자의 수에 따라 독주, 중주, 합주로 나누고, 표현 형식에 따라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실내악곡 따위로 나눈다.
 - 도술을 배운 주인공이 탐관오리를 괴롭히고 빈민을 구제하다가 서경덕에게 혼란 후 그의 제자가 되어 태백산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조선시대 소설 속 주인공으로, 작자와 연대는 확인할 수 없다.
 - 조선 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하여 개척한 곳으로, 이전에는 북간도라 불리었다. 주도는 연길시(延吉市)이다.
 - 외출할 때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와 무, 쇄, 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 큰 상자속에 85개 이상의 금속현을 치고, 이와 연결된 건반을 눌러서 현을 때리게 하는 장치로 소리는 내는 건반악기로, 음역이 넓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소년 토토와의 우정과 영화 사랑을 담은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영화.
 - 여든 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혼인할 남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 보아 부부로서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는 점.
 - 최근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로 충돌로 수도인 방콕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동남아시아 국가.
 - 손을 동시에 앞으로 뻗어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 다리를 모아 상하로 움직이며 발등으로 물을 치면서 나아가는 수영법. 버터플라이.
 - 소설가 이청준의 원작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례를 소재로 한 임권택 감독의 1996년 영화.

지난호 정답

아	이	다	고	천	고	마	비
다	도	플	갱	어	덕	엔	
지	중	해	린		윤	날	
오		반	칙	왕	아	레	
	미	인	도	자	린	고	비
컬	투	네			라	이	
	리	온	실	효	과		청
반			크		전	봉	준
구	침	발	로	각	래		
대	금		드	뷔	시	산	조

퍼즐 당첨자 명단

■ 큰집 식사권

- 석상훈(부산진구 부암1동)
- 정영임(동구 초량동)
- 이미정(연제구 연산5동)
- 허은진(동래구 온천3동)
- 김옥선(연제구 거제1동)

■ 놀부집 향아리갈비

- 박경석(사천시 사남면)
- 박현주(부산진구 부전동)
- 조은빈(부산진구 연지동)
- 전환우(부산진구 양정동)
- 김하은(금정구 장전동)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 김연경(부산진구 양정동)
- 신세민(연제구 거제1동)
- 김하진(영도구 대평동1가)
- 박광혁(사하구 다대2동)
- 김은주(연제구 거제2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이탁곤(해운대구 재송1동)
- 이영희(북구 화명동)
- 정혜정(연제구 연산5동)
- 김연하(부산진구 가야1동)
- 이혜원(사상구 감전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놀부집 향아리갈비 대연시티원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해외여행비 3%할인받자!!



*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가을물결 단풍여행

가을에 떠나는 낭만적인 단풍여행



계수나무꽃의 향연
신(新)계림/이강유람/양식+상해 5일
CCP759 969,000원~



한쪽의 풍경화같은 캐나다 단풍길
캐나다 낭만여행 8일
HCP262 2,890,000원~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여유있는 가을여행
동유럽 3개국 9일
EEP361 2,590,000원~

세계최고의 휴양여행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천 휴양지 여행



화제의 휴양지
세부 상그릴라 리조트 4일/5일
APP753 1,099,000원~



여성 5%할인!!
사이판 PIC 리조트 5일/6일
PSP705 1,349,000원~



서울출발/ 최신식 리조트
팔라우 로얄리조트 5일/6일
PPP413 1,299,000원~

Best seller 3 유럽여행

고객만족 1위 유럽여행 Best 3



우수인증상품
터키일주 8일/9일
EMP357 2,190,000원~



서유럽의 핵심여행!!
알프스와 베르사유 4개국 9일
EWP308 2,290,000원~



멜크 수도원과 신비의 소금광산
동유럽 5개국 9일
EEP379 3,290,000원~

이색체험 일본맛여행

일본, 그 맛에 동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맛여행



먹거리 천국 일본의 맛집기행
오사카/교토 4일 (1일자유여행)
JHP533 979,000원~



먹거리 천국 일본의 맛집기행
쿠로가와+유후인/규슈온천 4일
JKP542 999,000원~



먹거리 천국 일본의 맛집기행
북해도 4일
JSP561 1,099,000원~

HiHAN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3%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이상준팀장 직통 051-442-1271 / 이순남 직통 051-442-1272

전국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1759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10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일과가야금 합주단 연주회

■ 프로그램

곽재영/25현 가야금을 위한 중주곡 'Little Stories'
브람스/파반느 · 헝가리 무곡
비틀즈 모음곡/Hey jude, Let it be, Ob-La-Di-Ob-La-Da
조익래/가야금3중주 '추억나들이'
러시아민요/아무르 강의 물결 · 카츄샤 등 수곡
· 단장/장혜숙(중요무형문화재 제83-가호 구례향제줄풍류 전수조교)
· 해설/장명화(한중 민족음악교류회 대표)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함녕지곡(집박/유경조 · 소금/조은경 · 대금/강영진, 이만형, 최재호 ·
해금/최성교, 강영현, 박은영 · 아쟁/최희정 · 장고/이장우 ·
좌고/송강우)
해금독주 '적념' (해금/최윤희 · 신디/백규진)
기악합주/남도굿거리, 금강산타령, 동백꽃타령(대금/강은주 · 피리/박순자 ·
해금/방병원 · 아쟁/최윤희 · 가야금/정미자 외)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전학수 · 북/신문범)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노래로 가을을 열라'

■ 프로그램

합창 1 가을가곡 연곡(편곡/김기영)/그리움, 애 가을인가, 이별의 노래,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코스모스를 노래함
테너 독창 이수인/석굴암(테너/박광하)
합창 2 그리움/고향 그리워, 산들바람, 고향의 노래
함께 부르는 노래/가을(백남석 시, 현재명 곡)
가을 밤(이태선 시, 박태준 곡)
트럼펫 독주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합창 3/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한계령, 상록수
· 지휘/김강규 · 트레이너/박광하
· 작, 편곡/최석태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국악협회 연주회

■ 프로그램

무용/선녀무(출연/이혜영, 이현경, 박선훈, 박신진, 김미정, 김경미)
가야금 병창/단가 '녹음방초' 심청가 중 '방아타령' (출연/강명옥 · 한국
국악협회 부산지회 부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
금병창 산조 이수자)
민요/금강산타령(출연/조정례, 신수방)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 (창/이정하 · 고수/김정애)
창작무/오방신무(출연/이혜영, 이현경, 박선훈, 박신진, 김미정, 김경미)
· 해설/장준영
· 음악반주/송재운(대금), 김정애(장구)

• 관람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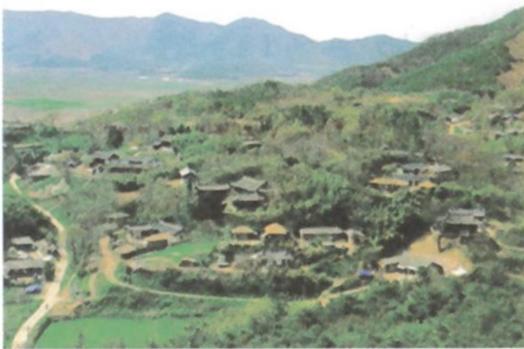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11월 14일(금) 사과 향 가득한 영천 별빛마을 가을여행

충효의 고장, 과일 향 가득한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아름다운 별을 헤는 영천 정각리 생태마을에서 감자 삼gut구이, 사과따기 체험 등으로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가을을 즐긴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영천 전통염색교육관 염색체험장 도착, 염색체험
- ▷ 11:30 중식 후 별빛 마을로 이동
- ▷ 13:00 시민천문관 관람, 감자 삼gut구이, 사과따기 체험
- ▷ 17:00 부산으로 출발



▶ 12월 12일(금) 경주 양동 민속마을 민속 체험

500년이 넘는 고색창연한 고와가(古瓦家)와 이를 에워싸고 있는 고즈넉한 초가로 이루어진 경주 양동마을로 떠나는 겨울여행. 오랜 기억 속 시골 마을의 추억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예와 효를 배워 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분황사, 황룡사지 답사
- ▷ 12:00 양동마을 도착, 중식
- ▷ 13:00 양동마을 탐방
- ▷ 14:00 양동마을 민속 체험(전통놀이, 한과 만들기)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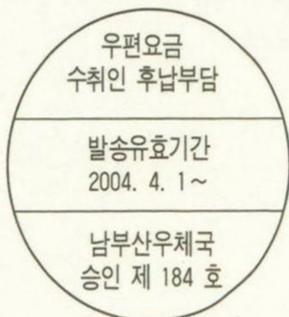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10% 할인



▶ 날짜: 2008. 9. 26(금)~10. 26(일)

▶ 시간: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각색/김정숙 · 연출/권호성

▶ 입장권: 균일 25,000원

▶ 장소: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2008. 10. 1(수)~12. 31(수)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시간: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오페라과 신설

- ▶ 작품: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 ▶ 모집일시: 2008년 10월 4일(토) 오후 1시(10월 25일까지 모집)
- ▶ 모집대상: 오페라에 관심있는 분은 나이,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 ▶ 수업내용: 오페라 악보연습, 연기
-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BUSAN CONSERVATORY 사무실 TEL. 051-501-3999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FAX. 051-505-3999
BUSANCONSERVATORY Art Hall 홈페이지. www.bscon.co.kr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대연분원 T. 628-9110(경성대전철역 2번 출구, 푸르지오 상가 2층)

부산콘서바토리오음악원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매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2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행복을 주는 사람

7080 세대를 위한 달콤한 추억의 주크박스 뮤지컬

달고나

2008.10.18(토)-19(일) 오후 3시 /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난타제작진이 만든 또다른 야심작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소문난 뮤지컬 달고나

-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 주관: 부산문화회관 (주)PMC 네트워크
- 공연문의: 부산문화회관 (051) 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051) 607-6070
- 공연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http://www.bsculture.busan.kr>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

할인정보

- √ 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 다자녀가정 20% 할인
- √ 20명이상 단체구입 20% 할인
- √ 국가유공자·장애인 50% 할인